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김현덕
주간 이현재
편집장 이현재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961-4183(FAX겸용)
아세기지사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상영

참간 1955년 4월11일 【주간】 THE OE DAE HAGBO 제635호 1994년 11월 15일 (화)
등록번호제 다253호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자곡동 그린벨트(G · B) 풀 수 있는가?

한국토지 행정학회의 G · B제도 개혁안을 통해 살펴본다.

G · B 개혁 여론 높아

김교수, "자곡동 G·B해제 가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힌 학계의 주장이 일고 있어 본교에서도 자곡동 그린벨트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토지 행정학회, 환경관리 공단, 국민생활 임밥제안 운동연합 등의 학계 ·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린벨트 제도개혁 논의는 지난해 김태복 교수(중부대) 의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발표를 시작으로 그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린벨트제도의 지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그 개선방안이 사회여론화 되자 서울캠퍼스 의대 발전 학생추진위원회(위원장 방학진, 법 · 법학 4)는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지난 2일(수)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과 문제'라는 의대사랑포럼을 열어 김태복교수의 초청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태복 교수는 "자곡동도 강남 · 수서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본교는 지난 92년 교수, 학생, 동문, 직원이 참여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활동을 보여오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병만 총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노력'이 지난 8월 3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추진사업은 현재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학계를 비롯한 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그린벨트제도 지체의 모순과 그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 오를 전망이여서 이를 대비한 본교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제단이 소유한 강남구 자곡동 21만평 부지의 많은 그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는냐를 떠나 본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핵심적인 물적토대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참된 일꾼이 되고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입후보자들의 정견토론회가 지난 10일(목) 언론협의회 주최로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호 1번은 사회제반의 모순해결을 강조했고 기호 2번은 학내 복지시안에 역점을 두었다.
교육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양측 후보에게 진정한 외대발전을 기대해 본다.
<박종선 기자>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과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대회

사회개혁 향한 또다른 전진… 민주노총 초읽기 돌입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과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지난 13일(일) 오후 2시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 · 학생 ·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는 하반기 최대사업으로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전노대)가 모든 역량을 쏟았던 민주노총 건설 사업의 노력과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노대를 해체하고 '민주노총 건설 준비위원회'(준비위)를 발족시켜 민주노총 건설이 마침내 가시권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준비위 산하 모든 노동조합(노조)이 '업종별 협의회'형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구체적 준비에 착수, 지지체 선거가 예정돼 있는 내년 6월경 민주노총이 건설될 전망이다.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 박종규씨는 "정권의 엄청난 폭력앞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6월투쟁으로 조합원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요구의 정당성을 알려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6월투쟁을 통해 우리가 깨닫았던 교훈은 업종이란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현 정권의 폭력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노총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민주노총 건설시기 상의 문제에 대해 전국연합 공동의장 윤영규씨는 "엊그제도 현총련 노동자가 제3지개입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리고 UR로 서비스, 통신 등 모든 분야가 개방돼 농민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몰락하는 등 노동자들도 살길이 막막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분쇄하고 민족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정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에 의한 민주노총이 하루 빨리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회장의 모든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건설과 노동악법 개정,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해 단결하여 힘있게 싸울 것을 결의하고 청량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1970년 분신자살로 근로기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씨를 당겼던 전태일 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경기도 마석모란공원에 있는 전태일 열사 묘소 앞에서 열린 참배식에서 윤영규씨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했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도 정권은 광폭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장 주변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현장 미술전'과 각 노조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주막이 열려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박수정 기자>

용인 내일 선거

서울,17일 후보등록마감

내일 16일(수), 모레 17일(목) 이틀간에 걸쳐 용인캠퍼스 제16대 총학생회 선거가 각 단대 로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난 1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일정을 공고한 이후 양측 후보는 정책자료집 배포 등 활발한 선거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지난 10일(목) 3시 학생회관 앞에서는 선관위의 주최로 '제16대 총학생회 선거 1차 유세'가 약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첨으로 우선권을 얻은 기호 2번 정석민(동학 · 마인어 3) · 임성은(동학 · 아랍어 3) 조는 눈에 보이는 학내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장 후보 정석민군은 "왕산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학내복지시안해결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는 열린 학생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기호 1번 이희진(사회 · 경제 4) · 김병준(서학 · 노어 4) 조는 그동안 선배들이 이뤄온 학생회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총학생회장 후보 이희진군은 "백두산 통일기행등의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왕산발전을 위한 제반 학내문제에도 걷고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유세 이후에는 제6대 언론협의회가 주최하는 정견토론회가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한편 서울캠퍼스에선 오는 30일(수)부터 이틀동안 도서관 앞 광장에서 제 29대 총학생회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어제(14일) 부터 후보추천이 시작된 서울캠퍼스는 오는 17일(목)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4학기 이상을 필한 자이며 유권자 4명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 관련 기사 3면 · 11면>

<곽근영 기자>

빈의자 다시 변화의 길목에 서서

▲씨클운동에서 대중적 학생회로의 전환은 학생운동에 있어 '변화'라기 보다는 '변혁'이었다. 광주민주화항쟁을 거치면서 고조되어온 민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를 담을 수 있는 틀거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94년 학원자율화 조치는 봇물터지듯 학생회를 만들게 했다.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역사개척의 선두에 서온 학생운동의 특징은 '대중적'학생회가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초기 임상시업위주에서 '전투적 학생회'로, 다시 '지주적학생회'로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이 학생회의 주인으로 되는 과정이었다. '지주적학생회'를 모방하는 시기에 이르러 '학생들이 주인되는'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었다.

그 끊임없는 자기변화와 맞아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기에, 학생이 우리사회 민주화의 원동공신이었다는, 학생운동은 정당하였다는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학생회 건설 10년, 또다시 변화해야 할 때다. 시대상에 낯도록, 학생들의 요구에 맞도록 학생회를 발전시켜온 선배들의 고민을 알고 그 앞에를 향유했기에, 우리는 치열하면서도 담담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환기에 흔히 드러나는 좌우편향이 보이기도 한다. 청년학생들이 담당해 온 사회 · 정치적 역할을 과감하게 내 던지고 학생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학내 복지 등에 치중하자는 주장도 있고, 과거에 연연하여 변화의 시도가 원칙의 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인다.

양편향 모두 과거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에 자신없어 하는 것이다. 학생운동의 역사 이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야기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개인 · 가족의 평안을 먼저 찾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는가. 나부터 먼저 바로 사는 것이 애국하는 것임을 알고, 나라가 바로 되어야 나와 가족이 잘 산다는 것을 알았기에 외적이 침입하면 나의 목숨, 가족의 안위에 연연하지 않고 전장으로 달려 나갔던 것이리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역사의 진리를 오늘에 맞게 적용시킨다는 의미이다. 학생회의 존재이유와 임무를 잊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정조직으로 걸어가는 것, 변화의 고개를 전면면전 넘느냐도, 이것은 학생회가 존재하는 한 잊지말아야 할 원칙일 것이다.

도도한 학생운동의 역사에서 또한번 비상을 도약하는 우리의 고민을 지랑스럽게 여기자. 그리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학생회 · 학생운동의 전통을 만들어가자.

이현재

지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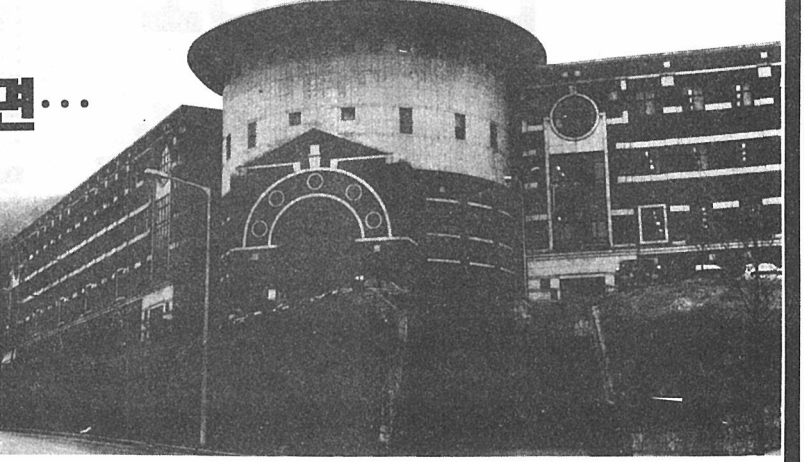
3면 : 용인 총학 선거 정견토론회 정리
4면 : 두만강 개발 계획, 경제협력 토대
2. 두만강 개발 계획이 가지는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의의
5면 : 북한 학계의 단군릉 발굴 진위와 이후 과제
7면 : 통일 문화를 위한 몸짓 – (1) 개괄
8면 : 김삼석 · 김은주 남매 간첩 조작사건
9면 : APEC 회담이 갖는 의미와 올바른 방향
10면 : 교육개방의 광풍이 몰아친다
4. 취업준비생이 본 교육개방을 앞둔 외대
11면 : 양캠퍼스 각 단위 학생회 선거일정

장년외대를 일구는 사람들

아홉번째—용인캠퍼스 도서관 자치위원회

우리의 손길이 이곳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왕산의 밤은 적막하다(?) 라는 말은 이제 그만!
별빛과 함께 빛나는 왕산, 그리고 도서관,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발견할 수 있는 3명의 파수꾼.
김재욱(사회 · 무역 3)을 필두로 한
김종진(동학 · 인도 3), 장민용(인문 · 사학 4).
이들이 도서관을 애용하는 공부벌레(?)
결코 아니다.
용돈을 벌기위한 아르바이트(?)
그것도 아니다.
바로 왕산과 왕산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하나 모인
도서관자치위원회
한번 말으면 영원히 내자리가 되고, 책상은 낙서장이 되고
술취한 이의 시끄러운 고함소리.
그들이 있는 한 더이상의 이기심은 용납되지 않는다.



외 대 학 보

사 설

합(合)으로 가는 교육과 외대

94년 들어 우리 대학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할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던 캠퍼스를 가득 메웠던 무기력과 좌절감, 그로 인한 불만과 불평!

이제 깊어가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에 짙은 안개가 걷히듯 캠퍼스는 환하고 힘찬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지난 학기초에 취임한 학교 당국의 노력에 우선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 개방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행에서 외대가 짊어져야할 부분의 극대화를 위해 학교 당국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문들을 통해 외대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교수·직원·학생들이 동참하여 '열린 총장실'이라는 획기적 제도를 외대의 독특한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바로 동맥 경화에 걸려 있던 대화의 통로를 일거에 틔우는 대수술이었으며, 그만큼 외대인 모두의 답답한 가슴을 틔어내는 좋은 장이 되었다.

그리고 여름 방학부터 시작되었던 학교 지도부의 지방 순회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지방 동문들의 학교 사랑을 확인하고 조직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부모들의 열의와 관심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바로 지난 9월 '외대인의 날'이라는 거교적 행사에 참여하였던 동문과 학부모들의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캠퍼스에도 변화의 모티브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공과 계열의 연구 센터가 될 용인 캠퍼스의 신강의동, 16개국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위성 방송망의 완공, 신연구동의 준공, 이어서 독립된 통역대학원 건물과 제2교수 연구동의 착공. 이제 외국학 종합센터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개방화와 국제화에서 외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완성된다. 대학의 교수·직원·학생 모두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 제촉하는 것은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로 인한 건강한 긴장감이다.

다만 우리를 우려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80년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혜젠이 말하는 정(正)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正)이 아니라 반(反)이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은 합(合)이다. 비록 그들이 이 점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은 교육의 장이므로 내치기보다 끌어안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관용만이 교육의 방법은 아니다. 때로는 엄한 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는 학생회 간부가 되려면 총 평점이 3.0이 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총학생회장이 책상을 팔이나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학업에 충실한 만큼 언행에도 품위가 있었고, 회장으로서의 철학과 비전도 있었기 때문에 다수 학생들의 구심점으로서 학교 안팎의 존경을 받았다. 그때는 학생회장이 3학년 재학생이었으므로 졸업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일도 없었다. 또한 학칙에 의해 대의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는 모든 학생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견제도 받았다. 동문 선배들도 학생회장에게 품위유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열렬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곧 95년이 된다. 남은 2개월간 학교는 아직도 합(合)으로 가는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을 책임있게 지도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것은 95년을 밝게 맞이하기 위해 학교가 해야할 과제이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진실된 삶, 함께 하는 삶을 소망하는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여기에 싣고 싶습니다.
원고지 2~7매에 그 목소리를 담아 매주 금요일 오후5시까지 본보 학생기자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구태의연한 학교행정을 보며

등록금 인상율에 못 미치는 행정서비스 아쉬워

서울캠퍼스 학생회관은 약 30여개의 학생회실, 40여개의 동아리, 학생처, 출판부 등의 행정시설로 인하여 하루 약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많은 시설들이 타건물에 비해서 빨리 소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리와 설비 보충은 영성하기 짝이 없다.

한번은 학생회관에 유리창이 파손되어 관리과와 학생회관 안내실에 수리를 요청했더니 양쪽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까지 유리는 새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 만약 깨진 곳이 본관이었다면 어떠했을까? 학생회관 입구에 전자시계는 약 6개월간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지만 본관 현관에 설치된 시계가 고장난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 이것은 학교행정 시스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국가공무원의 복지부동이 한창 세인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학내에서의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 · 윗사람 눈치보기 등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학교의 행정시스템을 보다 보면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학생들의 등록금 대부분이 인건비인 점을 볼때, 인상된 등록금 만큼이나 향상되지 못한 행정서비스가 아쉽다. 올해의 등록금이 10년후 후배들을 위해서 쓰이는 장학적금은 아닐진대 언제나 돼야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제공될까?

얼마전 전국 사립대학교 총학장협의회에서 내년도 등록금 인상율을 15%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천절하게(?)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줬다. 물론 내년도 등록금 인상문제도 예년처럼 큰 진통이 예상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록금에 비해 변하는 모습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편익이 너무 구태의연할 정도로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서비스에 익숙한 외대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할 태도는 명약관화하다.

총장님은 얼마전 학부모·동문 간담회에서 외대발전에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다. 학교행정의 입대혁신과 개혁또한 외대발전의 밑거름이다. 이것의 개혁을 기대해본다.

방학진 <법·법학 4>

□ 전태일 열사 추모제를 준비하며

자각된 삶으로 현실 개척을

매년 이맘 때면 전태일열사에 대한 기억을 되씹으며 생각해보는 것이 있다. 올해는 파연 몇명의 젊은 목숨들이 직업병으로 죽어갔는지, 몇명의 광부들이 무너진 갱도 속에 생매장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하다가 거리로 쫓겨나고 수배당하고 구속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계에 대한 근심걱정으로 지샐했는가 하는 슬픈 생각들이 이것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루 평균 9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미명하에 변변한 보상도 없이 죽어갔고, 원진레이온 기계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팔려갔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이 무참하게 짓밟혔고,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되어버린 갱도 붕괴사건 · 조선소 노동자들의 재해속에서 살인아닌 살인들이 벌어졌다. 이제 나는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땅의 노동자들은 결국 자본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덧 열사가 산화해간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리고 열사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 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랫줌에 있는 노동자아저씨의 힘겨운 삶의 신음소리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산업재해 사망소식은 끊이지 않고 한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근심어린 얼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참다운 삶을 살았던,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목메이게 슬픈 인생을 살았던 청년노동자 전태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줄거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SCA에서 전태일 열사 추모제를 준비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다. 그것은 단지 열사가 기독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열사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의 실천적 사랑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이다. 열사와 예수의 죽음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자각시켰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열사를 추모하는 것이다.

박진우 <서학·이태리어 3>

□독자만평

전진표 <자연·전자공학 1>

외대학보 제작중지는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가 아니랍니다.
-94. T-

학보야! 너 어디 갔드노?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아나? 앞으로 가출하지 말그레이!
-94. 떡두꺼비-

굴하지 않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굴의 투지 女-

또다시 학보를 가방에 챙겨야지.
-93. 성실이-

신난다, 신나! !
-심마니-

백지 대자보

주제 : 70여일만에 외대 학보를 받아보니…

반갑습니다. 외압에 굴하지 말고 앞으로 외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외동이-

2.00이하도 사람이다. 학보기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82-

묻혀버린 외대의 70일, 돌리도! !
-외대역사연구회-

역사의 주인은 민중, 학보의 주인은 외대인.
-외인부대-

외대학보를 학교 홍보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워!
-이쁜 투덜이-

□도서관 자치 위원회에 바란다

사물함 설치로 도서관 사석화 방지를

최근 용인캠퍼스 도서관에는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산하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서관의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변화를 기대했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황산 전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수고하는 도자위 위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보내고 싶다.

지난 11월 4일(금) 부터 도서관 사석화 방지를 위해 도자위 위원들이 책을 치우기 시작했다. 물론 도자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 사석화가 생기는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책을 치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전공책 한 권만 넣고 다녀도 가방은 매우 무거워진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전공을 포함한 그 많은 책을 일일이 짐까지 들고 통학하는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느낀적이 있을 것이다. 도자위 위원들은 매일밤, 그리고 아침에 책을 치우러 다니는 시간과 노력을 이런 근본적인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물함 설치를 위해 들이는 것이 훨씬 빠른 도서관 발전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새로 붙여진 도자위의 대자보에서 전국 어느 대학도서관에도 없는 일들, 특히 사석화를 꼬집으며 학생들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글을 읽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성과 양심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여, 과학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도자위가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고민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의견수렴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학생들의 양심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도자위가 사석화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해결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최필균 <사회·경영정보 2>

□ 각과 예술제를 보며

더욱 다양한 행사로 학생들의 참여 유도해야

어느 해나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모든 학과가 예술제나 학술제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쁘기만 하다.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공연을 위해 바쁜 일과 중에도 틈틈히 연습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노라면 아무래도 이것이 1년의 과행사 중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왜 이런 행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인 듯 하다. 과 간부, 과내 소모임 구성원들 이외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생회의 행사임에도 방관자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물론 많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행동의 무대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한 과가 1년을 결산하는 자리에 단지 몇몇 소모임들의 공연 · 학술발표 등만이 이루어지는 것과, 1 · 2학년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쉬움 따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래 해오던 것들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몇몇 과에서 행하고 있는 지명인사 초청강연회나 체육대회 · 가요제 · 동문인의 밤 · 일일호프 · 그리고 지역학 모임 주장에 걸맞는 행사 등 좀더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모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뤄지는 예술제와 학술제는 외대의 힘찬 도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원준용 <서양·독일어 2>

기여 입학제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교육부에서는 대학 정원 자율화 등의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고질적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물질적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연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있는가는 공공연히 제기됐던 문제이다. 물론 기여입학제도가 조기 해외유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대학에 충원함으로써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줄이어 터지는 박한상 사건 · 지존파 사건 등 비이성적인 사건을 볼때 기여입학제 역시 황금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한용규 <동양·태국어 1>

제4회 비씨카드 논문현상공모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열어가는 비씨카드"

1.응모자격
●제한없음

2.논문주제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용카드와 동화상증가의 상호적 관계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신용카드의 역할과 기능
●신용카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정보통신화 사회에서의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방안
●신용카드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신용카드와 고객만족 경영
●신용카드관련 법률적 문제와 그 특징
●신용카드사의 효율적인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의 신용카드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3.공모일정
●공 모 기 간 : '94. 11. 28~'95. 2. 25
●입선작발표 : '95. 3. 31
우편접수는 등기발송에 한하며,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4.응모요령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10매 정도의 요약문 첨부)
●논문작성요령 : A4 규격용지(워드프로세서) 사용
●제 출 처 : 비씨카드주식회사 종합기획부 논문현상공모 담당자앞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우편번호 137-070

5.입선작 발표 및 시상
●입선작발표 : 1995. 3. 31 (한국경제신문 공고 및 개별통지)
●시 상 : - 최우수작(1편) / 상금 300만원, 상패
- 우 수 작(2편) / 상금 각200만원, 상패
- 가 작(3편) / 상금 각100만원, 상패
- 입 선(5편) / 상금 각 50만원, 상패
- 참 가 상(응모작전부) / 기념품증정

6.기타사항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입선작이 없을 수 있음.
●논문응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명기
●접수된 논문은 변환하지 않으며 입선작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종합기획부로 문의(전화 : 02/520-4871~3)

비씨카드

인재를 찾습니다.

지난 12년간 최고의 신용카드회사로 신용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비씨카드가 고객과 함께하는 21세기 초일류 종합금융회사로의 제2의 도약에 동참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직	상 경 계 열	10명 내외
	법 경 계 열	10명 내외
	이 공 계 열	10명 내외
전산직	전산·통신계열	10명 내외

지원자격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 자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병역필 및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사에 기술적 및 전문적인 경력자 중(해당 전공)

2.전형방법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영어, 논술)
●면접 및 신체검사

3.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사 소정 양식) 1부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1994. 11. 8(화) ~ 11. 16(수)
●교 부 처 : 당사 본·지점
●접 수 처 : 당사 공채부 인사팀장

5.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1994. 11. 19(토) 10:00 당사 1층 공고

6.기 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우리접수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사 공채부 인사팀장
(전화 : 02/520-4341~3 에 문의바랍니다.

□용인 제16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정책분석

'왕산발전' 양쪽다 근시안적 시각

통일운동 · 한총련 연계 여부가 차이

지난 10일(목)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는 제 16대 총학생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들의 정책, 정견, 다음학기 학생회 운영계획등을 알아보는 정견토론회가 언론협의회주최로 열렸다. 학내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대답과 정책들에 나타난 양후보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양후보의 학내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왕산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논의돼야 할 다음 몇가지 사안들을 놓치고 있다. 첫째,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사립학교법등의 교육법에 나타난 악적요소, 해마다 비싼 등록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교육재정, 전리의 상아탑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원통제 정책등은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둘째, 투지없는 사학재단의 문제이다. 교육적 목적보다는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들의 구조적 모순이다. 본교 재단또한 수익용재산의 부재로 투자재원 확보에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유일한 재원확보 방안은 부동산 뿐이다. 특히 강남구 지곡동에 소재한 21만평의 토지는 그린벨트만 풀리게 되면 본교 발전의 풍부한 물적토대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양캠퍼스 분리로 인해 용인캠퍼스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학시행정의 서울중심, 재정의 통합운영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 대학원, 연구소들의 서울소재로 연구기능의 한계, 양적팽창의 부산물인 중복학과들, 첨단과학과 실용학문이 부족한 지연대 제2캠퍼스의 열악한 교육환경 교수공동화 등의 문제들은 용인캠퍼스의 서울캠퍼스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양캠퍼스 관계정립없이는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다.

넷째, 학교운영의 민주화이다. 학교운영이 학내 구성원들의 이익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 직원의 참여로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92년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왕산발전위원회'구성을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을 보여오지 않고 있다.

양측후보의 학내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들은 '왕산발전'을 위한 공약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도 근시안적이고 비체계적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 없는 공약들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당국의 5개년 발전실천계획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전학 적령기 학생수 저하로 대학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고 대외적으로는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시련앞에 본교는 대학의 본연적 기능마저 상실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시기에 본교발전에 관한 논의는 '생존권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후보의 차이는 사심상 통일운동 여부와 한총련에 대한 입장뿐이다. <이현재 기자>

□열린총장실 현장녹화

학생들 호응얻는 '열린총장실'

다양한 학내문제 토론의 장

안병만 총장이 취임한 이래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된 '열린총장실'이 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된 열린총장실은 그동안 학생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교수들과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못해온 점등을 미뤄볼 때 그 대상이 대학의 가장 총체임지인 총장이라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열린총장실을 통해 대학당국에 대한 건의 · 요구사항이 시정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서실장은 "열린 총장실은 학생들의 주장을 즉시 받아들여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리며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대발전 학생추진위원장 방학진(법 · 법학 4)군은 "열린 총장실을 통해 우리가 건의하고 요구한 것이 그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열린 총장실을 용인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총장은 "조만간 용인캠퍼스 학생들을 초청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0월 26일(수)부터 지난 9일(수)까지 열린 총장실에서 거론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교수연구동이 건립되고 있고 조만간 통역대학원 건물과 또다른 건물을 세울 예정이다. 그러면 공간문제는 해결되리라 믿는다.

—본교 커리큘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 전체의 커리큘럼을 조정하기 위해 커리큘럼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각 과 위원회도 있으며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범대는 전임교수 확보율이 적고 부속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요즘 거론되고 있는 사대 통폐합과 관련한 본교의 정책은?

=부속 고등학교 설립은 지금 힘들다. 5개년 발전 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환 학생 제도를 확대 · 운영할 계획은?

=그 부분은 대찬성이다. 기획조정처에서 계속연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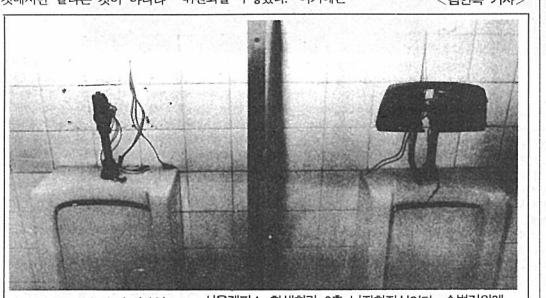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장학금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학생처에서 검토하라고 했다.

—외국학 종합연구센터가 서울이 아닌 용인캠퍼스에다 건립하려는 것은 용인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절대 그렇지 않다.

<김인옥 기자>



설마 외대인이(?)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3층 남자화장실이다. 소변기위에 부착된 자동 세척기가 모두 훼손 됐다. 학생회관 안내실 직원에 의하면 벌써 두번째라고 한다. 외대인의 도덕적 자각과 학교측의 빠른 보수가 요구된다. <사진부>

□언론협의회 주최 제4회 정견토론회 정리

15대 총학 평가

기호1, "세민전 성사등 높이평가"
기호2, "성과미약·학내문제 소홀"

△지난 15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기호 1번 총학생회장 후보(1번 정) : 도중 하차한 14대 총학생회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변화하는 학우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려고 힘썼다. 세민전 성사등의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간부들의 잦은 교체는 자기발전 노력이 부족했다.

=기호 2번 총학생회장 후보(1번 정) : 기본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인정하나 성과가 미약하고 학내문제에 소홀하고 무관심했다. 또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과 아량이 부족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한 공통공약(구속학우 석방외한 국보법철폐, 한총련강화)을 기호1번측은 수용했고 기호 2번측은 인권차원으로 구속학우석방 문제는 수용하고 한총련 강화부분은 대답을 보류해 선관위에서 제안한 공통공약은 사실상 실현되지 못했다. 기호1번은 학내복지사안과 위의 공약을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인가?

=1번 정 : 학내외 문제는 동떨어져 있지 않다. 대학다운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제반의 모순들이 해결돼야 한다.

△공통공약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한총련과의 관계는?

=2번 정 : 위 공통공약의 수용여부는 이후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 대학은 다원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한총련만이 학생운동의 단체는 아니며 그외 다른 단체도 있다. 굳이 한총련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학내문제에 정진할 생각이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처할 왕산발전 구체적인 방안은?

=1번 부 : 지역학도입,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건립등의 왕산만의 특화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상층간부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학생회 사업을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2번 정 : 함께 일할 일반학우들을 공개모집해 비판이 오가는 총학내의 야당을 형성하겠다.

△백두산 통일기행의 실현가능성과 이 사업이 갖는 의의는 무엇? 불가능 할때 지킬 선언적인 구호성 사업이 될 우려도 있는데.

=1번 정 : 지금과 같은 통일정세가 유지되면 백두산 통일기행은 100% 실현가능하다. 만일 정세가 돌발적으로 바뀌어 불가능해 진다면 중국을 통해서라도 가겠다.

△기호 2번 후보측의 공약중 학교측의 왕산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과 현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2번 부 : 학교가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 총학은 압력을 가해 실천을 견인해야 한다. 계획안에 있기때문에 더욱 실현 가능하다.

△기호1번 공약중 교양과목의 외대특성 강화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작 외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문계열의 전공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 전공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은?

=1번 부 : 전공교육은 폭넓고 깊이있는 내용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교수강의 방법이 좌우한다. 이문제는 강의평가제 실시로 해결될 수도 있다.

△양측후보 모두 눈앞의 복지사안에만 매몰돼 있다. 교육개방등 대내외적 시련을 앞에 두고 있는 왕산의 장기 발전상에 대한 의견은.

=2번 부 : 단기적인 학내 복지사안을 먼저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작년 총학의 공약은 학내외문제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업은 학외로 치우쳤다. 둘은 함께하기 힘드므로 '학내'를 선택하겠다.

=1번 부 : 왕산의 장기적인 발전은 종합대학으로 서는 것이다. 학외에서는 사회모순 척결투쟁과 학내에서는 외대학술진흥으로 타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곽근영 기자>

학생회 선거관련, 학칙적용 부활

학생측, 자치권 탄압의도 비난

용인캠퍼스 학생처는 총학생회 선거에 맞춰 총학생회 정 · 부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조건과 관련된 학생회칙을 골자로한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 이에대한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처가 이번에 보낸 공문은 학생회칙중 선거관련 조항으로 제44조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관련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회칙에 나와 있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사문화 돼 온 이번 관련 회칙이 올해 특별히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우 부총학생회장)의 한 관계자는 "이 회칙의 내용은 엄연한 학생회 자치권에 대한 탄압으로 만약 이 회칙에 명시된 입후보자 자격조건에 어긋나는 후보자가 당선될 시 총학생회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짙다"라며 이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2>
김호일

□자곡동 그린벨트 풀 수 있는가?

한국토지행정학회장 김태복(중부대)교수로부터 듣는다.

G · B제도 자체 개혁돼야

자곡동 해제, 충분한 합당성 있어야 가능

—그린벨트제도 개혁과 관련된 이해집단과 정부기관의 입장은 어떤가

=관련 이해집단이라고 하면 그린벨트 지역주민, 건설부, 국회 건설분과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학술연구단체, 시민단체등이 있다. 각 단체마다 제각각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에 그들의 개혁요구가 가장 높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그린벨트 설정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이기에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언론 기관은 아직 그린벨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연구단체는 직접 몸소 체험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는 환경보호위해 그린벨트는 절대 개발해서는 안될 성역으로 주장하다가 지금은 개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일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린벨트제도 개혁이 언제쯤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는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설정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월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질 것이다. 이시기에 정책적 과제로 함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없이 정책기관의 힘만으로는 많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현 그린벨트제도 법테두리내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한가

=일단 그린벨트내 건물설치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 21조의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므로 건설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외대가 보유한 지곡동에 교육기관 설립을 하려면 충분한 합당성과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설부에서 수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린벨트제도 개혁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현 그린벨트설정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으므로 모든 그린벨트 지정구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꼭 녹지로서 보호해야 할 곳은 그대로 묶어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아래표는 김태복 교수의 연구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GB제도의 문제점		합리적인 개혁방안
법률적 측면	도시계획법 21조 근거, 시설상 시행규칙정도로 집행. 법률 체계상의 문제의 행정부 재량권 남용이 대두	*G · B에 관한 구체의연한 고정관념 탈피 *G · B지정 목적달성 됐거나 존재가치 없는 지역은 원인 행위 없어졌으므로 해제돼야
지정의 문제점	지정당시 충분한 실태조사 없음. 과정과 절차이 없었음	*G · B구역에도 최소한 생활기반시설 제공되도록 제정적 · 제도적 강치돼야
관리의 문제점	*인접지역과 비교시 낙후성 *생활상 위화감 초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조치 미흡 *도시 행정서비스 제공 힘듦 *행정 감시원의 역기능적 대민업무 야기	*G · B보전 당위성 인정될 수 있는 녹지를 계획하고 법률적 · 행정적 조치 취해야 *공공시설 유치 적관성 있어야 *G · B실제적 관리운영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G · B 이용의 문제점	*환지없는 이용 토지지원의 비가역 현상 공공시설 무분별한 유치 *토지공급 제한으로 이용상 문제 *지목에 따른 효율적 이용 아니다.	*이러달시지및 관련자 집하권 견해를 농축시킬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G · B관한 국가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 필요 *G · B문제 해결위한 근본적인 대책 조속히 마련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기업 – 삼성

작은 사랑을 나누는 일 –
참다운 젊음의 몫입니다.

전공 공부에의 몰두, 미래에 대한 준비 –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대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된 젊음이라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사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 봅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근로 청소년을 위한
야학, 좁디 좁은 운동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고아원
아이들, 당신의 입으로는 험한 것을 드시면서도 자식을
먼저 걱정하시는 양로원의 노인분들 –
모두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나누어 가는 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젊음이라는
값진 시간을 소중히 채워나가는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삼성은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에 앞장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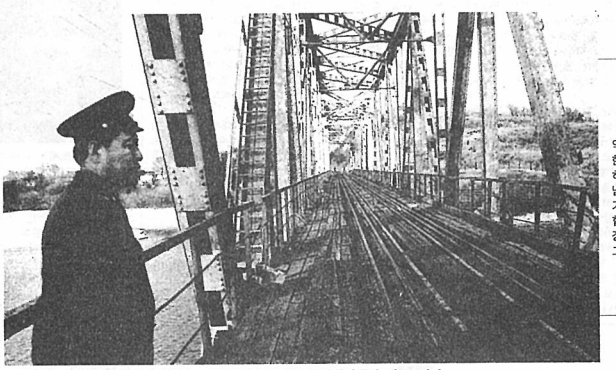
SAMSUNG
삼성

□두만강 개발계획의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의의

두만강 개발계획, 동북아 경제협력 토대

<글싣는 차례>

1. 북한 경제의 현황과 대외경제정책의 필요성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과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관계
2. 두만강개발계획이 가지는 동북아경제권에서의 의미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의 상
3. 남한과 외국의 두만강 개발계획 참여 현황
남한기업의 두만강 개발계획 참여시도 실패



두만강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이 가진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그리고 경제개발의 경험 및 경영 기술등이 결합될때 세계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사진 : 시사저널>

두만강 지역은 러시아·중국의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남한·일본의 자본 및 기술, 경제개발의 경험 및 경영기술 등이 결합될 때 세계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

현재 각국은 세계경제의 구조적이고 순환적인 불황속에서 일정한 경제권의 지역화를 통해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지역화의 현상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범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독일, 일본 중심의 3극화현상을 나타내면서 1992년 이후 단일시장으로 통합된 EU,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자유무역연합 등이 결성된 동시에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확대의 시도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세계 각국은 이전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두만강지역 지리적 조건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동북아지역에서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북아경제협력을 제기하여 남북한과 일본 및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역별로 천연자원의 보존상태나 국가별 산업 구조면에서 상호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호혜적 경제협력과 수직적 분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 3성(흑룡강, 길림, 요녕성)이 가진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그리고 경제개발의 경험 및 경영기술 등이 결합될 때 세계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거의 쌍무적 관계로만 일관해 왔던 동북아의 경제관계가 다자간 경제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북아경제권에의 남북한 동시참여는 상호 경제적 이해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관광·해운·수송의 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무한

동북아지역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유엔개발계획(UN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이다.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양국이 태평양 경제권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여기는 소위 '황금의 3각지대'라고 불리는 두만강하구의 개발을 포함하는 이 계획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활력소이다. 이 계획은 두만강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 해운, 수송 중심지 및 가공, 제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을 동북아경제협력의 발전적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두만강개발계획의 진척 상황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은 1990년 7월 중국 장춘에서 있었던 제1차 동북아지역 경제개발협력에 관한 세미나에서 중국측이 최초로 구상을 발표하였고 그후 91년 3월 UNDP가 제5차 사업기간(1992-1996년) 중 남북한과 중국, 몽골이 참여하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정회원국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다. 옵서버로 일본, 필랜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UN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정회원 5개국으로 구성된 '계획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차에 걸친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진전사항을 보면 두만강지역 접경 3국의 통치권 보장, 영토국법률에 따른 토지 임대, 국제관리방식 도입,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확보 등 4개원칙에 합의하였고 정부간 조정기구를 전체 당사국이 참여하는 정부간 조정위원회와 접경 3국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과 두만강 개발회사의 설립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올해 7월에 모스크바에서는 4차 회의가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열려 두만강 지역개발을 담당할 '동북아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정부간 협의체로서 이 계획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발지역이나 개발방식 그리고 통치권 제한문제 등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중국, 한국, 소련이 공동으로 3개국 접경지역인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고 두만강 하구를 준설하여 방천에 항구를 개설하고 훈춘지역을 경제특구로 조성하려고 하며, 소련은 기존 극동 및 연해주 항구를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할 방침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이에 적극적 의의를 두고 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그에 관련된 법안까지 제정하여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남한은 동북아경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내륙시장의 거점확보, 경제성 있는 수송로 개척, 북한과의 합작증진 등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냉전잔재·개발자금 조달 등 어려움 남아

두만강개발계획의 의의

결국 두만강 유역개발계획은 두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나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경제권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주로 외국자본을 유치·이용하려는 제한적인 전략을 가지는 반면 일본이나 남한은 시장경제로의 유도를 통한 블록화의 기초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로 남북관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남북경제협력의 측면이다. 즉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후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이 지역에는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어 국가간 원활한 협력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하부구조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동기가 약하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3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자금의 조달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또한 각국이 개발구상과 관련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이해관계의 조정문제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국이 지역경제협력의 전형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낙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김 은 경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북한의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

두만강 최대활용 3단계 계획수립

국제화 중계·가공수출·관광기지 목표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문헌 결정 74호로 채택된 이 결정문에 따르면 나진·선봉지역(총 621㎢)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며 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관계기관의 승인아래 외국인에 대한 합작, 합영, 외국인 재정지원기업 등 각종형태의 기업설립, 운영 및 각종 서비스 사업 종사를 허용하고 기업경영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창설되는 역내 기업들에게 투자의 성격에 따라 관세, 소득세 인하 및 면제 등 특별 혜택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나진, 선봉항은 1년내내 얼지않는 부동항이면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화물수송은 북한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기존의 항구, 철도 및 도로 등이 있어서 육해연계 수송에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 때문에 북한은 이를 두만강 유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하면서도 그것과는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면서도 특별히 제정되는 법적제도와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며, 그의 목표는 국가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두만강, 동북아 및 국제적인 경제협조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실정에 맞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가공수출지대임과 동시에 중계무역지대로 설정되고 있다.

이 계획의 발표 이후 북한에서는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계획추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북한은 UNDP의 전망에 따라 이 발표를 확대·개편하여 93년 12월 나진시와 선봉군을 나진·선봉시로 명명하고 7백46㎢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확장하고, 사회간접자본에 33.3억달러, 공업부문에 36.6억 달러, 총 69.9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 지역에 대해 국제화 중계기지, 가공수출위주의 제조업기지, 국제적인 관광기지를 목표로 하여 3단계 계획을 설정하였다.

1단계(1993-1995년)는 기존의 항도, 도로, 항만 등 하부구조망을 현대화하여 국제화를 중계수송기지로서의 역할제고 및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주변국가들과 도로, 철도의 기본간선들을 연결, 단일의 중계수송망 체계를 확보하고,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개조·확장하여 나진, 선봉 및 청진항의 화물처리 능력을 2천만톤 이상으로 증대시키며, 나진지구에 집중투자와 투자지대의 거점도시화 등이다.

2단계(1996-2000년)는 동북아에서의 교류거점 역할을 목표로 하면서, 1단계 개발과정에서 마련된 하부구조망에 의거하여 국제중계물동량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가공수출산업기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까지 5천만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증대시키며, 산업기지들을 지구별로 전문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로 수출위주의 경제지구를 형성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이다.

3단계(2001-2010년)는 21세기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국제

앞의 필자와 동일>

POSCO 메세지 취업편

"평생직장"

매년 많은 신입사원들이 채용됩니다. 모두들 의욕과 패기로 가득차 있는 듯이 보이지만 왠지 몇몇 사원은 타회사 사원모집광고를 쏠리는 눈길이 심상치 않고, 어느 날 보따리라도 싸들고 훌쩍 떠나버릴 것 같이 불안해 보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장래에 대한 심사숙고없이 우선 입사부터 하고보자는 성급한 생각과 월급 몇 푼에 천세자리 옮겨다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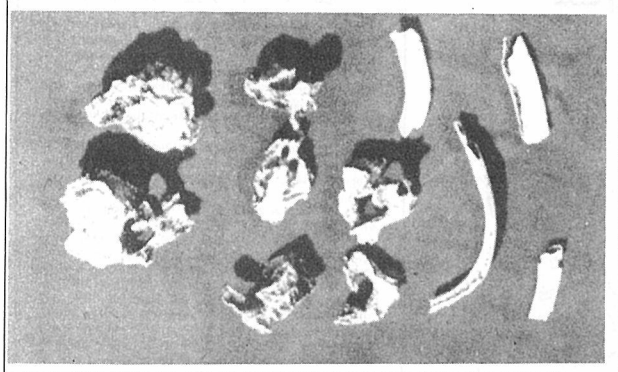
사람에게는 책임을 다하는 보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21 세기의 주역이 될 당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목전의 이익과 안일에 사로잡힌 채 주머니엔 항상 이력서를 준비하고 다니며 신문광고나 기웃거리는 천세사원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사가 가는 당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직장선택 —
한 번 선택한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의지로 선택하십시오.

포항제철

□북한 학계의 단군릉 발굴 진위와 이후 과제

같은조상 놓고 다른 견해, 민족과제



위 뼈는 평균5천 11년전의 뼈로 단군은 70살 정도의 노인이었으며 몸집이 웅대한 장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족시원' 밝히고 '민족사관' 재정립 위해 학술교류 진행돼야

지난 10월초 북한은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의 각계인사와 학자를 초청했다.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남한 학계에서는 북한의 단군릉 발굴 사실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민족의 시원에 대한 문제이므로 단군릉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남북 학계의 의견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북한이 작년부터 단군릉 발굴에 착수하고 나서부터 남한학계에서도 단군릉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일고있으나 남한 학계가 거기에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근거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묘의 형태가 석신묘로 단군 때의 것이 아닌 고구려 양식이라는 것 둘째, 단군의 뼈가 어떻게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단군이라는 민족적 우상을 이용하려는 북한정권의 제스처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요동지방에서 살다 남하했다"는 사관이 남한의 고대사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학계는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낡은 사대주의적 사관으로 보고 있으며, 단군이 상당부분 왜곡되고 신화적인 인물로 추락했기에 고대사를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군릉도 "우리 민족은 원래 한반도에 살고 있었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고조선을 세웠다"는 사관에 기초해 발굴·조사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학계도 발견된 묘가 장방형 청동관과 세움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고구려 양식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단군릉이라 주장하는 것은 원래 고구려 사람들은 동명왕과 함께 단군을 숭배했고, 때문에 단군릉을 고구려 시기에 개축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단군을 숭배했다는 사실은 삼국유사의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다"라는 기록과 제왕운기의 "고구려 사람들은 단군의 후손이다"라는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고구려인들의 단군에 대한 신앙심으로 단군릉을 자기들의 무덤양식으로 개축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단군릉은 요동성에 있던 것이 아닌 평양에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증명된다.

또한 무덤에서 나온 뼈에 대해 현대물리학의 첨단기술중 적은 양의 시료로도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오차가 작은 이점이 있는 '전자상자성공년대 측정법'으로 6개월동안 총 54번의 측정을 했다고 한다. 측정결과 그 뼈는 평균 5천 11년전의 뼈로 단군은 70살 정도의 노인이었으며 팔과 다리뼈가 긴 것으로 보아 키가 크고 몸집이 웅대한 장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한학계는 이 뼈가 5천년이 넘도록 보존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근거로 단군릉의 위치가 석회암 지대였다는 것과 그 지대의 토질이 중성이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뼈가 화석화되어 영구보존될 가능성은 부패부식과 풍화여부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2백년 전의 사람뼈가 발견된 것과 중국 황화중·상류의 6천년전의 원시부족에서 수백개의 사람뼈가 발견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단군의 뼈는 땅속 깊숙한 석회암 지대에서 발견됐는데 석회암의 수용성 광물질이 용해된 물기의 침습을 받아 뼈가 반쯤 화석화된 상태였다고 한다. 또 그 곳 토양은 산도가 7.0으로 뼈가 부식되지 않고도 보존될 수 있는 전형적인 중성토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 학계의 주장 외에도 단군릉이 평양근교에 위치한다는 것을 밝히는 역사적 문헌자료가 남아있어 정확한 진위규명의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강동지에는 "큰 무덤이 있다. 하나는 현의 서쪽 3리에 있는데 둘레가 4백10자나 된다. 민간에서 단군묘라고 전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북한 학계에서 발굴했다는 평양근교의 단군릉의 진위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남한 학계에서는 직접 가서 조사해 보고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있다. 우리가 단군릉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발굴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북핵문제 타결로 형성된 화해국면과 남북대화가 곧 재개돼 여러 교류가 활성화 될 시점에 학계가 '민족시원'을 밝히는 문제로 교류를 시작한다면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과거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뿌리뽑기 위해 실시했던 단군말살정책에 의해 왜곡되어지고 신격화돼 버린 단군의 존재를 다시 밝히는 것으로 '민족사관' 정립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홍익인간'이라는 공통의 민족적 이념속에서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찾고 체제적으로 분단돼 있는 남북간이 이념적으로 융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부>

□본교 도서관의 실태와 외대인의 학습풍토① —도서관의 환경문제

도 · 서 · 관?

서울, 소음·시험기간 좌석부족 심각
용인,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안돼

"한 학교의 학습풍토를 알려면 도서관을 봐라"라는 말이 있다. 외부인이 우리의 도서관을 봤을 때 과연 우리의 학습풍토를 어느 수준으로 볼까? 본교의 학우들이 책이 1천만권 이상 있고 열람실이 사석화돼 있는 외국의 유명대학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전 동아일보에는 개방화시대 '언어학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안병만 총장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언어학의 메카'가 되기 위해 본교 도서관이 최소한이나마 갖추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본보에서는 본교 도서관의 실태를 환경과 책 분류, 책의 내용과 질의 측면에서 분석,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기획 마지막에는 도서관을 통해 본 교육환경이 학술풍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우들은 도서관에서 무엇을 공부하나'라는 주제로 알아본다. <편집자>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휴식공간 부족과 소음문제, 시험기간 좌석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휴식공간 부족의 경우 휴게실이 각층마다 있긴 하지만 구조상 흡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5층 휴게실에서만 흡연을 하는데 5층 휴게실은 환기가 전혀 안돼 항상 뿌옇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옥상에 흡연실을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도서관지위원회(도지위)에서는 옥상에 돔을 씌우는 등 개조해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층 휴게실을 세미나실로 개조해 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불법건축물에 속한다고 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너무 오래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열람실의 환풍기 구입도 두달이 넘도록 실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캠퍼스 도서관자치위원회 조성달(상경·무역 4)군을 만나

"활동공간의 부재로 학우들 문제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도서관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되는가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부족이다. 전체적으로 학교가 줄어서 교수연구실과 지하매점 등까지 도서관에 있다보니 학우들의 학습, 휴식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적 대안은 학교를 넓히는 것이지만 공간배치를 다시하는 등 좁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극복할 수는 있는데 학교측이 의지가 없다.

-도자위는 어떻게 학우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있는가

=도자위 방이 없고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는 등 상황이 열악해 실제로 학우들의 문제제기를 건의함 외에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직접 학우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와 우리가 실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화요일에 1층 수위실을 빌려 회의를 하고 여기서 공유된 내용들을 도서관 측에 요구하는 수준이다.

-학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교 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실이나 소음문제 등은 학우들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학우를 위해 실내에서 정숙하고 힘들더라도 담배는 옥상에 올라가서 피는등 도서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사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특히 청소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도서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소음문제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윤병석군(상경·경제 2)은 "노천극장에서 행사가 있는 날은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입니다. 학교가 좁은데 뛰라할 수도 없고 그냥 참아야죠"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음문제에 대해 도자위 위원장인 이용규군은 "이중창 설치와 노천극장에 돔 설치, 창틀패를 위한 공간마련이 해결방안인데 솔직히 학교측에 요구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또 책상칸막이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했을 경우 불빛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책상 4개마다 헌광등이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며 학교측의 도서관 발전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용인캠퍼스 도서관의 경우는 늦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가는 차가 없는 것과 80년도 이전의 책이 하나도 없는 것 등 책의 부족에 대해 학우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학우들이 책을 빌리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고 특히 시험기간에는 대부분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서울캠퍼스 도서관의 혼잡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시험기간동안의 막차시간 변경등 여기에 대한 학교측의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험기간 좌석부족 문제는 도서관 4층 세미나실을 개방하고 신장의 등 일부를 열람실로 사용하는 등의 논의가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또한 매점이 없어 지척에는 먹을 것을 사러 모현까지 내려가야 하는 형편이고 책도 7시30분까지 밖에 대출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도자위 준비위가 얼마전에 따낸 것이라 한다.

이 외에도 양캠 모두 분실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서울은 점수된 것만 해도 한달에 7-8건이고 용인의 경우는 분실사고 때문에 '메뚜기 살리기운동'을 폐지했을 정도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도자위에서는 사물함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안되고 있고 단지 출입시 학생증 검사만 강화해 학생들과 직원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여학우들을 위한 휴게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부>

파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금상자

파업손해 배상청구소송(이하 파업손배소)이란 불법쟁의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행위다.

파업손배소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19세기 선진국에서 적용하던 법률이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노동자의 단결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인정하게 되면서 파업손배소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조활동의 탄압수단으로 파업손배소가 이용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기준이나 외국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쟁위행위 제한제도를 갖고 있고 또 법원의 판례가 쟁위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불법쟁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절차 지체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고, 부분적인 위법행위를 빌미로 쟁위 전체가 불법으로 매도되고 있다.

한예로 금성사가 노조위원장도 아닌 1만명 파업지중 한사람인 이균하씨에게 파업손실액 2백56억원 전부를 청구했던 사실은 이 법이 불법쟁의방지를 위한것이 아니라 노조무력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학/술/단/신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문제 학술시민 포럼

체제전환의 군사적·법적 방안 마련

지난 10월18일 북—미간 핵타결로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차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군축과 기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이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현재 정전협정 시행기관인 군사정전위에서 북한과 중국이 철수해있는 상태이고, 얼마전 중국의 리펑총리 방한때도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체제의 전환이 가시권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에 아시아사회과학 연구원(원장 : 이장희 본교 법학과 교수)은 오는 18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법'이라는 주제로 통일문제 학술시민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과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라는 두개의 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회의참석자 전원이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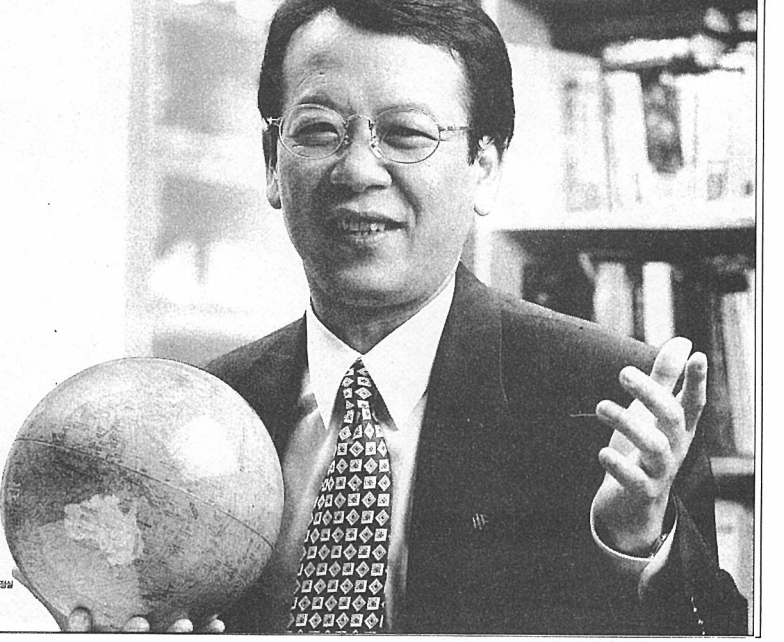
제5회 이문공화국 UR의 종합적 대책·대안 고민

본교 행정학과 하생희는 지난 9일(수) 오후 6시 대학원에서 'UR 감추어진 진실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라는 주제로 제 5회 이문공화국 모의국무회의를 개최했다. 89년부터 매년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들을 뽑아 풍자극 형식으로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해왔던 이문공화국에서 올해는 UR에 대해 개방불가피만을 강조할 뿐 심층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이문공화국에서는 간간히 상황극을 연출시켜 농민들의 고통과 수입개방의 부당성을 잘 묘사했다. 미국의 UR대책 상황 등을 통해 UR국회비준 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대안 모색'이 미흡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이문공화국에서는 94학번도 다수 참여해 학술적 측면외에도 과학생회 강화의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준비위원장 양태진(행정·4)군은 "준비기간 미약했고 선진도 부족했지만 UR에 대해 학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의의를 밝혔다.

나의 국적은 지구?

"나의 몸은 92개국의 물과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인 – 21세기를 열어가는 코오롱의 자화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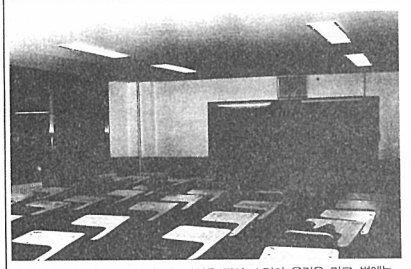
바로 여기 이사람입니다.
이란 – 이라크전의 포연속으로 혼자 들어가
노숙을 하며 양국 병력이 입은 전투복의
50%를 팔아치운 사람.
우리와는 국교도 없는 시리아에서 3개월만에
국방장관을 '아저씨(uncle)'로 만들어버린사람.
그룹 기획조정실, 국제화추진팀의 임영호이사.
지금껏 주어진 여건대로는 살아본적이
없으며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까지 바꾸어 살아온 사람.
이미 코오롱맨들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한 세일즈맨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나의 국적은 지구"라고 당당히 말하며
지구촌 92개국을 누벼온 수출의 철병 –
코오롱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세계화의 주역.
바로 내일, 당신의 자화상입니다.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
국제화 추진팀
이사 임영호

보람의 일터
코오롱

"아늑한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강의실 개·보수한 명지대를 찾아



필요이상으로 높은 천장에 텍스타일을 깔아 소리의 울림을 막고 벽에는 방음장치를 했다. 이중유리창은 훨씬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총학생회에서 실험강의실로 강의실 개조, 학생들의 요구로 전강의실 개·보수 하기로 해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을 중·고등학생들이 심심지않게 한다. 경제발전과는 상관없이 낙후돼 있는 교육환경을 빗댄 말이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 비해 엄청난 등록금을 받고있는 대학교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낡은 강의실 하나를 학생들이 스스로 고치고 학교측이 이를 전면 수용한 학교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명지대는 지난 여름방학동안 17개의 강의실을 개·보수했다. 이 공사는 지난 6월 중순쯤 서성찬(행정·4)군이 총학생회에 제안하고 총학생회가 이를 학교측에 건의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여담을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까만색의 무거운 녹슨 창틀,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강의실까지 들리는 벽, 목소리가 울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때도 있게 하는 높은 천정 등 이들을 '20년이 넘은 역사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학교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총학생회는 강의실 하나를 개·보수한 '실험강의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공사를 하기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였고 시험기간인 점을 감안해 도서관에서 야식을 판매하기도 했다.

'실험강의실'에 대해 학교에선 '사유재산에 손을 대면 형사처벌'이라는 형법을 들며 학생들을 위협했고 강의실의 개·보수는 불가능함을 밝혔다. 또 6층의 한 강의실에 '실험강의실'을 꾸민다는 정보를 알아낸 학교측은 6층을 전면 봉쇄했다. 이에 총학생회장인 이우택(영문·4)군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며 망치로 문을 부쉈고 학생들이 들어가 공사를 강행했다. 필요없이 높은 천정에 텍스타일을 깔아 소리의 울림을 막고, 벽은 나무에 방음막을 덧대어 방음장치를 했다. 또 낡은 창틀을 떼어내고 알루미늄 이중 유리창틀을 달아 기존보다 아늑한 강의실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직접 시각적으로 좋은 색으로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다.

실험강의실에 대한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이 반응에 더 버틸 수 없었던 학교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공고를 붙였다. 우선 이번 여름방학에는 공간의 재배치에 구애받지 않는 17개의 강의실을 개·보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여름방학 두달간 17개 강의실 공사는 모두 완료됐고 학생들은 2학기부터 새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외대로 눈을 돌려보자. 목소리가 울리는 높은 천정, 벽 뒤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들리는 방음처리가 되지 않은 벽 등…. 이것이 서울캠퍼스의 오래된 건물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지어진 용인캠퍼스 신장의동에도 해당되는 것들이다.

'글 못쓰는 선비가 붓 탓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붓이 있어야 못쓰는 글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학교당국은 최소한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좀 더 고심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

명수당 明水堂

삶의 의미를 찾아서

대학에서 한편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워가는 생활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의 한가지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보내오는 저작물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하다는 점이다. 금년만 하더라도 약 15권의 책을 증정받았다. 보내주시는 분들의 성의에 보답도 하고, 나의 미약한 지적(知的) 기반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는 그 책들을 반드시 읽어보고 나름대로 "나도 분발해야지" 하는 새로운 각오를 하곤 하는 것이다.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인 철학과 강성위 선생님의 회갑기념 논문집은 제목부터 특이했다. 무슨 거창한 '현대철학의 제문제'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소박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가 그 제목이었다.

어느 누군들 삶의 의미를 찾지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책 안에는 열 다섯분의 주옥같은 글이 실려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가(儒家) 철학에 있어서 삶과 배움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해주었다. 인용이 다소 길지 모르지만 중요한 대목들을 보면 "유가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변화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바, 변화란 바로 존재함을, 존재함의 아름다움·선함·참됨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가적 표현으로는 존재하는 것의 살아있음, '생생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생생함'이야말로 전부이다." 누구나 다아는 얘기지만 일찌기 노자(老子)는 "표현된 것은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표현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천지(天地)의 지극한 덕(德)을 생(生)이라고 한다"는 귀절에 접했을 때 이 이상 더 생의 의미를 압축시킬 수 있는 진실된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천지(天地)의 지극한 덕(德)을 생(生)이라고 한다"는 귀절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 종 걸
<경제학과 교수>

참된 것, 진실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은 생명의 흐름을 구현한 것들이다. 유교와 생명사상을 결부시킬 수 없었던 나에게는 "주역(周易)의 경우, 그 전부가 생명의 기치를 찬송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구절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교가 단순히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철학이라고 생각해온 나의 무지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음은 물론이다.

머칠 전에는 우리 경제학과 선생님이 다른 분과 공저하신 'Korea Political Economy'라는 책을 받았다. 이 책에서 다뤄진 문제중의 하나는 '유가철학에 있어서의 삶'과 같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정신적인 가치들이 구현되는 물질적인 공간의 변화 즉 경제발전과 유교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였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에 경제발전을 깊이있게 다루고자 한다면 발전의 주체인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화·종교적인 요인에 관한 분석을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 민족주의, 사회적인 응집력 등을 충(忠), 효(孝), 인(仁), 의(義), 용(勇) 등과 같은 유가적 가르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서 지본주의라는 경제체제와 유교라는 정신적 토양과의 상관성을 강조한다.

철학자와 경제학자의 관점을 대비시켜 보면서 그러면 "유교적 자본주의가 얼마나 유교의 생명기치관을 실현시켜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말하면 유교적 자본주의가 유교의 핵심 사상인 만물일체에 기초를 둔 생명적 자연관을 구현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나는 단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스스로 제기하게끔 해주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릴뿐이다.

북누리 말글살이

<14>승벽내기

7. 서로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일.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두 주먹을 부르쥐며 뻐스를 따랐다.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뻐스 뒤로 흙먼지가 타래지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벗어진 모자로 얼굴을 문대며 승벽내기를 하듯 달려왔다.

—소설 쇠찌르레기 중 '우리 선생님'—

<문화부>

□사법고시 최고령 합격자 강성만 선배(본교 불어과 75학번) 인터뷰

"어학자료나 시설이 부족해 따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과 ○○학번 ○○○, 사법고시 합격'

'○○과 ○○○, 사시 합격'…

가을이면 어김없이 사법 고시합격을 알리는 플랭카드가 진입로를 장식한다. 올해 외대 사법고시 합격자 중 유독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어 만나보았다.

'사법고시 최고연령합격자 강성만(본교 불어과 75학번).

합격소감을 묻는 질문에 "쑥스럽다"는 강성만 선배의 생각은 20년전의 대학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측농증 수술로 인해 1년을 휴학했는데, 다음해에 후배들과 함께 배운다는 것이 좀 힘들어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그는 평소 외교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외대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나 막상 들어와 전공공부를 하자니 하고 싶은 외무고시를 준비할 수가 없더라구요. 외대라곤 하지만 어학자료나 시설이 부족해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됐어요. 그래서 두마리 토끼중에서 한마리를 선택한 거죠" 강성만 선배의 8학기 평균점수는 2.83. 한마리 토끼에 얼중했다는 그의 말이 중명된 셈이다.

대학재학 중인 81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89년 10월까지 외무부에서 근무했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시 외무부에 복직해 법률을 다루는 통상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며 "처음 잡은 토끼를 더 훈련시키고 살찌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겪은 것이죠. 여전히 외무에 관한 매력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사법고시에 도전한 이유를 말한다.

20년이라는 세월의 터울을 두고 외대에 대한 그의 의견은 이렇다. "입학했을 때 부속고등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곳이 나의 터전이 될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교정에 낡은 건물들에서 보이는 일제의 잔재를 말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인 지금도 변하지 않은 외대의 모습은 옛시절의 향수를 자아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강성만 선배는 "그래도 매년 외대생들의 고시합격률은 1등급이니 동선이 짧아 걷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학생들의 머리가 여전히(?) 좋은건지" 라며 농이 담긴 말을 한다.

<문화부>

외대 학술·문학상 미감이 임박했습니다. — 외대학보

문화단신

용인, 빛모습 10주년 기념 창작 영화제

용인캠퍼스 영화동아리 '빛모습'은 이제, 오늘 이틀간 신강의동 206호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제1회 창작영화제를 가진다.

올해 제작한 4편과 예전에 제작된 2편 등 모두 6편이 선보일 이번 영화제는 반전(反戰)을 주제로 한 '전쟁놀이', 통일영화인 '탈건'부터 캠퍼스에서 겪는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있다.

용인, 외비가디 공연

용인캠퍼스 노래동아리 '외비가디'는 지난 10일(목) 자연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뉴욕의 달빛 아래엔' 등 4곡의 창작곡과 여행스케치의 '시종일관', 에릭 클랩톤의 'Layla'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선보였다.

용인, 그림사랑 전시회

용인캠퍼스 만화·관화동아리 '그림사랑'이 지난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정기전시회를 가졌다.

성수대교 붕괴의 원인을 풍자한 연작만화와 핵문제, UR 비준 거부를 표현한 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전시돼 제도언론을 통해서 보는 사회를 또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인, 제17회 서우회전

용인캠퍼스 서예동아리 '서우회'가 지난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신강의동 104호, 105호에서 제17회 서우회전을 가졌다.

서울캠퍼스에서는 16일(수)부터 19일(토)까지 대학원 소강당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 FBS 방송제

제16회 FBS방송제가 지난 8일(화)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개교 40주년의 본교 상황을 진단한 '외대왕조 40년' 김영삼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오디오드라마 '크리스마스 캐롤' 등이 선보였다.

서울, 관현악반 제7회 정기연주회

서울캠퍼스 동아리 관현악반은 지난 11일(금) 제7회정기연주회를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연주회는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중 파란돈, 모짜르트의 교향곡 제29번등으로 엮어졌다.

서울, 불어과 후니브로 첫 정기 노래발표회

불어과 순수 노래패 후니브로가 지난 9일(수) 결성 7년만에 첫정기노래발표회를 가졌다.

통일문화를 향한 몸짓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

88년 이후 남과 북의 동질성을 찾으려는 문화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50여년의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질 것을 점점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분위기가 부르르고 있는 지금, 갈라진 땅을 잇는 것 만큼이나 갈라져 있는 정서와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보에서는 '분단문화와 통일문화'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남한과 북한의 문화를 점검하고 통일시대의 문화를 그려보는 글을 싣겠다.

〈편집자 주〉

1. 문화의 이질화, 극복의 몸짓
2. 분단 미술, 통일 미술
3. 분단시대의 문학

'아가씨.' 북한에서는 이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하녀', '심부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 '따분하다'고 해서 모두 놀랐는데 알고보니 '어렵다'는 말이었다.

북한에는 분단이후 신조어만 5만여개가 생겼으며 이 외에도 의미나 맞춤법이 달라진 말도 굉장하다. 남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비단 언어에 있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생활방식, 그리고 만들고 향유하는 문학예술 등 이대로 통일이 되면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다. 통일원 신하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연구원인 이헌경 박사는 독일과 예멘을 예로 든다. "독일은 1973년부터 방송, 인적교류 등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문화적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그러한 과정조차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통합은 이뤄졌으나 겨의 분단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동질화가 시급하단다.

그러면 이렇듯 정부, 재야 할 것 없이 지적하는 문화의 이질화가 무엇인가 살펴보자. 분단의 구조화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남한에 횡행하게 한다. 이는 민중의 건강한 미의식과 중요로운 정서를 반영하는 민족문화, 민중문화가 아니라 전형적인 분단문화로 확대재생산 되었다. 또 서구의 모든 것을 배격하는 북한의 집단주의적 문화는 남한 민중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문화, 음악, 연극, 영화 등 모든 부분의 이질화를 초래하는 언어의 이질화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한 문화적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가 한반도 통일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꽤 오래됐으나 그것이 실천으로 외화된 것은 1988년이었다. 그후 92년까지 남북영화제(뉴욕), 한겨레를 림(동경), 남북해외 서화전(북경) 등 활발한 문화교류가 있었으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데는 부족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남북 미술교류, 남북작가회의 등 제안은 빈번히 무산되기 일쑤였다. 게다가 92년 이후 핵문제 등의 정치적 사안들은 부분적인 문화교류마저도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렇듯 문화·경제·학술적 교류가 정치적 사안에 종속되는 현상은 교류의 맥을 끊어놓는 악소이다.

민예총 사무국장 박인배씨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을 비판했다. 또 문화교류를 통일원과 문화부에서 기준없이 분담하고 있기때문에 업무가 겹치거나 혹은 책임을 서로 미루는 등의 문제도 적지않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남북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촉매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쌍방의 자세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조건이다. 북한은 남한의 현대사를 이해하면서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찌꺼기'로만 남한 문화를 비판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교류를 통해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남방송을 통해 남한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을 알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도 법개정과 함께 "북한에는 이에 민간단체는 없고 모두 당·정의 지휘하에 있는데 무슨 문화교류냐"는 등의 북한의 정치체제조차 이해못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북한민중의 언어와 생활을 한낱 코미디물로 전락시키는 작태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숭인여부의 기준조차 없던 관행을 깨고 이번의 발표대로 최대한의 문화·학술·종교 교류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올해 코리아 통일미술전이 일본에서 열렸고 내년 봄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해엔 남북예술축전이 열렸다. 남북 음악인이 참가하는 윤이상음악제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있다.

민족공동체를 이루고 남북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의 민족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쉼없는 노력, 이것이 하나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통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통일 후를 준비하는 걸음걸음인 것이다.

<이옥선 기자>

□문화논평—메탈의 저항정신 바로보기

우리를 억누르는 것을 과감히 거·부·하·라

최근 한 대중가수의 음반을 거꾸로 들으면 '괴가 모자라', 괴가 모자라'라는 사탄의 메시지가 들린다고 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편견'.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무시무시한 위력(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을 발휘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무수한 편견 중, 대중음악 특히 메탈에 대한 편견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메탈, 특의 싹이 움트려고 할때 박정희정권은 그것이 지니는 음악적 특성때문에 무참히 고사시켰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한 메탈 음악의 수용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메탈의 정신은 '저항정신'이다. 기존의 사회가치를 강요하는 세력에 대한 안스러운 몸부림이기도 하다. 이 '저항'은 젊을 고유의 영혼일 수 있다. 메탈이나 록에 대한 첫마디는 '반사회성, 비도덕성, 과괴성, 악마주의적'으로 일축된다. 그 이면에 있는 기존사회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음은 중중 무시되어 왔다. 메탈이나 록은 그 시대상을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존 레논'의 슬로 발표곡 '혁명'(Revolution)은 당시의 미국사회상을 충실히 담고 있다. "혁명을 원한다고들 하지. 그래,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바꾸자고 하지…" 존은 이후 '민중에게 권력을', '신' 등의 곡들을 통해 직설적이고 과격한 메세지로 법, 종교, 도덕등 자본주의의 이념적 베일을 들추어 그 실체를 통렬히 고발하면서 개량과 개혁을 뛰어 넘어 혁명을 부르짖는다. 존 레논 이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메탈음악은 Thrash, Progressive, Puck 등 여러 장르로 분화된다. '실업자들에게 러브송은 필요없다'는 말로 유명한 실업자들의 대변인 '섹스 피스톨즈'는 반역집단이라고 제도권에 낙인찍히기도 했다. 80년대 현실의 부조리와 왜곡을 규탄한 80년대의 저항의 대변인 유투(U2)는 '80년대 사람들은 칵테일 감성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린 무드음악을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린 반대하는 것들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세로 음악을 한다"라고 말한다.

이들 이외에도 핑크 플로이드, 시네드 오코너 등이 현실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가끔은 '저항정신'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반체제적이고 부정부주의적인 프로테스트(저항)를 하기도 했다.

가수들의 행동, 이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직설적이면서 과격하고, 때론 그들의 음반 표지에 나타나는 섬뜩한 내용의 문구들은 우리 내부에 있는 편견으로 인해 꽹기만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 '세상에 이럴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를 연발하게 한다. 곡명도 '죽은 정신', '전쟁에 앞서 마시자', '일요일, 피에 젖은 일요일', '전쟁', '종말' 등 혼란스럽고 직설적이다.

짧은 얘기지만, 메탈 록에 젊은이의 사회의식이 깃들어있고 시대를 직시하는 눈이 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화부>

문화 응답샘

포마 고르제에프

—막심 고리끼 지음
—신규호 옮김

고리끼 최초의 장편소설이며 그의 문학 흐름에 있어 제2기의 첫대가 되는 작품이다.

이전까지 작가가 보여주지 못했던 사실주의 기법을 통해 '포마'라는 인물의 삶속에서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당시 청에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인과 지식인층, 초기이지만 지식인과의 역할문제와 맞물려 러시아의 장래를 담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노동계급의 모습이 생생히 드러난다.

당시 러시아사회의 병폐와 모순이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주는 작품이다.

(문원, 6천 5백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우에노 치즈크 지음
—이승희 옮김

이 책은 현재 일본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론의 두 계파 중 하나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각자 독립된 영역으로 이원화시키면서 이 이론을 일본에 적용, 여성억압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통일론을 논파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논쟁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과 일본에서 제기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비교할 수 있는 책이다.

(녹두, 8천 8백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김혜경씨가 소개하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법'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처음 이 책을 서점에서 보았을 때 그 제목이 나의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 참 솔직하고 바로 우리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생각했다. 물론 나를 비롯해서.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중 한국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데에 있어 가장 인색하지않는가 생각한다. 자신의 단점은 잘 알고 있는데 장점을 얘기하리면 쑥스러워하고 얘기를 못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만큼 우리 문화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보다는 꾸짖고 탓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계발시키는데는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책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저자가 정신분석학적 토대위에서 생활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일들과 가족관계의 문제를 치료하면서 느낀 점을 에세이로 엮은 것이다. 우리는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자신에게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 책 안의 소제목들은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사람은 김을 씌어야 메마르지 않는다', '결혼조건', '낮과 밤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행복한 성인', '너만 보면 속터져',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첫기억은 괄자다', '외도의 메카니즘', '엄마의 낮은 자존심이 만든 딸의 정신병' 등의 소제목들은 나에 대해서 다시 느껴보고, 생각해보게 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법'과 '살아가는 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저자이신 안향림선생은 가족치료 전문가이며, 모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우리 외대에서도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라는 강좌에서 강의하고 있어 그 이름에 친숙한 학생도 많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은 공감대를 이 책을 통해 느껴보기를 기대해본다.

비디오전문지를 정기구독하는 부장님
시사지를 달마다 꼭 챙겨읽는 신입사원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포용력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회사—「현대자동차」

몇개월전 박부장님이 젊음이들이 보는
비디오잡지를 정기 구독하겠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이유는 신세대와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신 비디오무비는 뭐고,
요즘 뜨고 있는 비디오스타는 누구고…

반면, 신세대가 무조건 경박하고
감각적이라는 편견은 절대 금물이라고
주장하는 김모사원은 월간시사지는 물론,
경제지까지 골고루 읽는 시사전문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에는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치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조선대 잇따른 경찰 잠입 · 폭력
총장, 경찰총장 앞으로 사과요구

지난 5일(토) 에 이학교 총학생회장 양동훈(한총련조통위원장) 군을 총을 쏘며 연행한후 11일(금) 에는 오후 5시경 조선대의 경찰 잠입 · 폭력연행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금) 오후 5시경 조선대 경상대학 뒷골목에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3명이 한총련 출범식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총여학생 회장 김지연(21 · 영어교육 4) 양을 붙잡으려다 실패했다. 12일(토) 에도 학내를 산책하던 김철홍(20 · 경제학 2) 군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나 학생들이 모여들어 연행에 실패하고 곤장 도주했다. 이들이 타고온 승용차에서는 쇠파이프 4개와 수갑 2개, 대학단체 현황과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현황 등의 서류 등이 발견됐다.

학내 잠입 · 사찰 정도가 아닌 폭력 · 연행 사태가 잇따르자 이학교 경찰 총장은 전남경찰청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된 현대노조간부구속
민주노총건설 저지 의도 짙어,

지난 6·8월의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쟁의가 노사 자율타결로 마무리됐음에도 이것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감작스러운 영장발부와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일(수) 에 현대중공업노조의 이갑용 전위원장이 임원중인 어머니를 병문안하러 가는 도중 잠복중인 울산 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구속된데 이어, 10일(목) 에는 현대정공 노조위원장 손장현씨를 현대중공업 노동쟁의와 관련해 제3지개입혐의로 구속하였다.

지난 10월 6일(화) 검찰과 경찰은 현대중공업노조간부 26명에대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중 구영식 수석부위원장등 간부10명을 검거,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를 구속하는 일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라며 "더욱이 노사합의로 마무리된 파업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단위노조인 현대중공업노조의 외해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민주노총건설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탄압이기에 민주노총추진위원회 차원에서 각종의 정치적 대응을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출범
노동운동의 새지평

정부부처기관등 140여개 공기업과 노동조합의 20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4일 속리산 서당골농원에서 단위노조위원장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공노대에는 정부부처기관노조연맹을 비롯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전국교원노조, 국책은행노조등 16개 부문단위노조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통신노조와 KBS노조가 참관하고 있는데 프랑스, 독일 등 노동운동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중심이 공공부문이라는 것을 볼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지평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공공부문 사업장의 사회적 파급력을 악용해 노동운동 탄압및 임금억제정책이 이뤄지는 등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기본권마저 철저히 제약받았다."라며 결성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공노대에는 민주노총추진위 소속 노조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모두 참여하고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초중고 지하수 64%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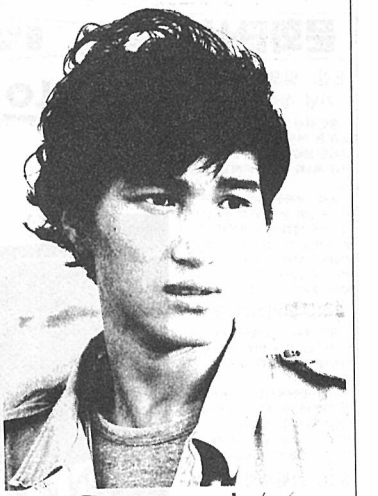
전국 초 · 중 · 고교 지하수의 64%가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를 비롯해 대장균, 염소이온 등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조시된 학교 대부분이 지난 상반기 각 시 · 도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이상없다'는 합격판정을 받아 학생들이 지금껏 음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홍기훈 의원(민주) 이 '한국수도연구소'에 의뢰해 분석된 결과에서 밝혀졌다.

□백홍용씨 양심선언을 통해 본 안기부의 허와실

간첩 만드는 국가불안기획부

"나는 프락치였으며 김삼석 · 김은주 간첩사건은 조작이었다"



양심선언을 한 남누리 영상 대표 백홍용씨(사진맨위)
김삼석씨의 여동생 김은주씨(아래사진 왼쪽)
92년 본교 졸업을 한 김삼석씨(아래사진 오른쪽)

간첩은 누가 만드나?

지난해 9월 국가안전기획부는 김삼석 · 김은주 남매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회합, 통신협의 등의 간첩활동을 적발, 이들을 구속한다고 발표했다. 안기부의 발표 이후, 여러 민주단체는 이번 사건은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고, 몇 언론들도 조작사건의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그로 부터 1년여만인 지난 10월 28일, 그동안 프락치로 의심받아온 남누리영상 대표 백홍용(가명 배인호 · 28세)씨가 베를린에서, 자신은 안기부의 프락치였으며 93년 9월 발표된 김삼석 · 김은주 간첩사건은 자신의 프락치 활동에 따른 안기부의 조작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양심선언을 했다. 이번 양심선언은 문민시대에 개혁하고자 한 안기부의 역할이 '간첩직말'이 아닌 '간첩생산'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기되었던 간첩사건의 의혹들

김은주씨는 지난해 9월 8일 백씨의 부탁으로 통역을 위해 일본인을 만난 자리에서 부탁을 한 백씨는 나오지 않은채 책꾸러미를 전달받은뒤 곧바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그 당시 책꾸러미 속에서는 북한 원전등이 발견되었다. 김삼석씨도 그날 오후 1시경 자택에서 역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김은주씨는 연행과정과 전술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백씨가 프락치였음을 눈치챘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의혹으로 첫째, 백씨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며 둘째, 취조하는 안기부 직원이 김일성 10대 강령을 들이밀며 '이 문건을 한총련에 전달해준 것을 우린 다 알고 있다'라며 협박을 해왔는데 이 사실은 백씨가 안기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면 안기부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느냐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 후 백씨는 프락치 의혹을 받았지만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라며 프락치 활동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김은주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김삼석씨는 3차 공판끝에 4년형을 받아 복역중이다.

백씨가 진술한 '간첩제조'과정

백씨의 양심선언문에 의하면 제아에서 노동문화운동을 하던 백씨는 92년 6월초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을 기획 · 제작한 일로 안기부에 연행됐다. 백씨는 수사관들로 부터 영화제작에 대해 '북한의 지시를 받은것이 아니냐', '전대협이 제작비를 대지 않았느냐'라는 추궁을 받았고 이에대해 백씨가 완강히 부정하자 '너도 이내창이 되럽 되고 싶냐'는 등 갖은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백씨는 파장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자신의 정보원이되면 평생을 호강할수 있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수배중인 형을 구속하겠다는 협박에 백씨는 형이 오랜 수배생활로 결핵 말기인 상태를 떠올리며 형이 구속된다면 얼마 살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에 안기부의 프락치 제의에 동의 했다고 했다. 이로 부터 백씨는 안기부의 지시에 의해 국내 운동권과 일본 조총련계를 연결시키는 일을 맡았다. 이에 관해 백씨가 안기부로 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93년 5월초 : '한총련과 조총련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네가 조총련계 영화단체를 찾아가 북한영화를 한총련에 보급하겠다고 말해고 국내로 들여와라', '김은주를 통해서 그 영화를 건네받게 만들어라' 93년 7월 : '김정일 영화예술론을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여 보급하게 하라' 93년 7월 말 : '김일성 10대 강령 등 북한관련책자를 김은주를 통해 한총련에 전달하라'는 등이다. 그후 백씨는 안기부 과장으로 부터 '지금 너와 내가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다. 하루 속히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상은 김삼석과 김은주가 가능하다. 너가 잘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안기부 과장은 백씨를 시켜 김은주씨에게 '9월 8일 일본사람이 오니 통역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했다. 9월 8일 백씨는 안기부 과장으로부터 '김은주에게 연락이 와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과 함께 김씨 연행당시 그와 함께 계속 있었다는 것이다.

간첩(?) 김은주씨를 만나

이번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김은주씨로부터 백씨의 양심선언내경과 이후 활동을 들었다.

-백씨가 양심선언을 했는데, 소감은?

=연행당시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 덤덤하기도 했지만 충격적인 일이었다.

-백씨는 왜 양심선언을 했나?

=백씨를 접견한 변호사에 따르면 간첩사건이 터진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한다. 안기부로부터 베를린의 범청학련 사무국에 가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쪽사람들과 친밀한 국내 사람을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독일로 가게 됐다고 한다. 독일에 도착하면 양심선언을 하려고 했고, 사건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준비해 둔 안기부 직원들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배낭밑에 숨겨갔다고 했다.

-이후 활동계획은?

=재심청구를 할 것이다. 재야 · 인권단체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와 김덕 안기부장 퇴진을 준비하고 있다.

음지를 지향하는건 아닌지?

안기부는 위와 같은 백씨의 양심선언에 대해 '모두 날조된 거짓말'(한겨레 신문 11월 10일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도 안기부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민시대의 안기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안기부, 진정한 양지를 지향한다면 안기부는 지난날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밝힘 '양심선언'을 할 차례다. <사회부>

불법체류 외국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

가요석의 눈

"우리도 인간이어요. 사장은 우리더러 대놓고 무건(물건)이라 말해요."

손에 하얀 붕대를 두른 외국인 노동자의 어설한 한국말투의 사장에 대한 분노와 함께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5만여 노동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노총 건설을 바란다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말에 이어 서울지역노동자연합(서노련)에서 "1천만 노동자의 동지에를 담아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기념손수건을 외국인 노동형제에게 드립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 마자 좌중의 환호성 · 박수소리와 동시에 서노련 노동자들이 부대로 뛰어 나왔다. 그리고 자신들이 두르고 있던 그 손수건을 풀어 거센 포옹과 함께 건넸다.

"이제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정부와 자본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투쟁 / 연대의 깃발을 올려라 총진군이다"라는 노래소리와 더불어 무대와 노천극장은 발하늘에서 휘날리는 수십개의 깃발과 함께 한덩어리가 된 듯 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자의 함성에 힘을 입은듯 "외국인 노동자가(의) 인권을 보장하라 / 감사합니다"는 구호와 네팔의 민속노래로 답했다. 그들의 손에서는 손수건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들은 지하철 한구석에서, 거리의 한모퉁이에서 쫓기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찌그러져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이제, 노동자들 속에서 큰 힘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고국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공장에서 부상당하고 학대받던 서러움도 잊은채 무대 위를 덩실덩실 춤에 겨워 매우고, 후렴구가 두어번 반복되자 좌중에서도 노랫소리가 음직하다. 지난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는 24년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산화해 노동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전태일 열사의 24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자리다. "정부는 우리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지금의 10만에서 30만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억압받고 착취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한 노동자의 "성수대교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김영삼정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민주노총건설로 폭삭으로 들린다"는 말이 정쟁하다다.

<신동헌 기자>

미군, 세 모녀 연행 · 폭행

세모녀에 대한 미헌병대의 연행, 폭행에 대해 동두천에서는 무기한 단식농성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 10월 25일(화)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 성은하(40 · 한남동 외인주택거주) 씨를 방문한 설씨의 노모 김금순(68)씨가 딸이 준 찬쌀과 쇠고기를 빌미로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관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오후 9시 40분경 미헌병대에 연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두딸마저 감금, 조사한 사건때문이다. 이과정에서 미헌병들은 이들에게 5시간에 걸쳐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하였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8일(화) 주한미군사령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접수를 거절하였다.

한편, 5일(토) 에도 이태원에서 미군병사가 한국인 한명을 폭행하여 심한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희대(수원)선거에 학교 개입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학생회선거에 학교당국이 개입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선업대 기호2번 김수영후보와 학교측이 협의를 해 그가 내건 공약을 실현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외해 · 분열하려는 학교당국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학생들의 순수한 선거를 지켜내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인사기록부에
학력난이 없다?

학벌,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자격요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존중의 경영이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학력의 벽"

사원들의 불신과 의심

인간존중의 경영이 이 인재개발위원회를 통해 전파되고,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많은 정부기관, 민간기업들, 그에 못지않게 사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고졸자가 대부분인 기능 · 사원들의 반응은 보다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과 기능직

"인간존중의 경영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봐야 뭐, 변수 있겠니까? 기능직 사원으로 시작해서 기능직 사원으로 끝날 텐데 ……. 우리한테 인재개발 같은 얘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뭐 월급이나 좀 더 주고, 복지에 더 신경 써 주면 그게 바로 인간존중 아닙니까?" 현장 들으면 그들의 진의는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엄청나게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평균 그들보다 같은 경우 이제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차는 거의 없어졌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사무직보다 나으면 나았지 덜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능직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물어 보면, '나이도 있고, 작식도 크고 하니 관리자가 되어 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게 그들의 솔직한 얘기이다.

편견은 깨부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사관리를 해오면서 바위처럼 굳어진 몇 개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못 다닌 사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나? 대학을 나와야지."

"명문대학 졸업이 비명문대학 졸업보다는 뭐가 나아도 낫지."

"여사원들이 일만 안하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다 이것저것 시고 저 심부름이니 결혼만 되기…"

이제 경영자는 이런 비합리적인 장벽들을 깨부수어 깨부수어야 한다.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면 얼마든지 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될 수 있고, 여사원도 평가는 동등 대외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외국어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외 근무를 시켜는 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력, 학벌없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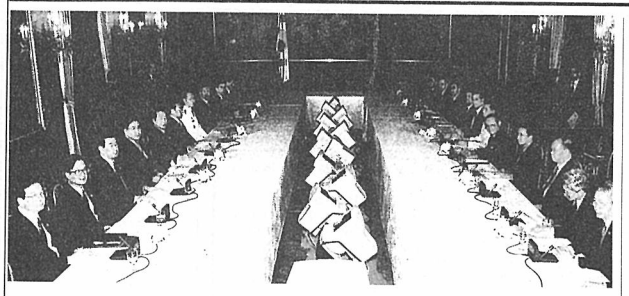
인물의 후보자 선에서는 인사서류에 학벌란이 없다. 사장이나 경영자는 이 분야의 능력이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기 이전에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선입견을 갖는 것은 벗어 버려야 한다.

나 역시 사원들에게 "본인의 학력, 학력,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더고 자격 요건에 따라 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 존중의 경영이며, 어린 풍토에서 신바람이 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현대국민프로야구단 CHAMPIONS 럭키금성



APEC회담이 갖는 의미와 올바른 방향

개도국 시장개방 · 신무역질서 교두보

작년 11월 시애틀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후 APEC은 UR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와 '경제적 지역주의'의 대두라는 세계경제질서의 뚜렷한 경향은 세계 총 수출입시장의 41%를 차지하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도 역시 관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무역과 자본투자의 비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APEC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제안된 지명인사그룹(EPG) 보고서의 주요한 원리로 전제되고 있는 "자유무역권리의 제한 없는 적용"이라는 기치의 이면에는 미국기업과 그의 여타 초국적 자본(TNC)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즉 미국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시장개방을 위해 APEC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APEC을 UR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야(금융, 해운, 통신서비스) 및 통상장벽해소에 대한 새로운 창구로서 신무역질서의 선도적 기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값싼 노동시장을 찾아 이동하는 이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생산시스템의 급격한 이동과 직접 투자의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국내 임금의 억제와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자본의 국제화와 경제적 기여주의'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APEC 역시 예를들어 서유럽이 유럽경기의 불황을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린 라운드 등으로 탈출하려

UR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새로운 변수

각국의 조화로운 발전위한 기구돼야

되고 새로운 경제적 분업 구조와 경제블럭(AFTA)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미주대륙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를 능가하는 APEC의 형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재 APEC은 EU를 견제하고 개방적 지역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여타의 지역주의를 견제하는 '새로운 지역주의'로 부상하고 있다. 작금의 아태지역 경제권은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들의 무한한 자본축적의 이해가 놓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선진자본은 이 지역을 UR타결 이후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권을 둘러싼 후발개도국과 신흥공업국, 그리고 선진제국(미국, 일본 등)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PEC은 한편에서 후발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파괴적인 구조 조정이라는 국민경제의 재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는 호혜평등적 방식으로 APEC이 진행되지 않고 개방압력의 가중으로 나타날 경우 개도국의 민중과 환경에 상당한 댓가를 치루게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명인사그룹(EPG) 2차보고서의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 이행시간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대자본의 다국적화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UR협상의 결과가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댓가를 지불하였듯이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이행시간표'의 결과는 사회적 통합의 악화와 사회적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결고 하고, 미국의 자국의 제정적지와 국내 경기 부진을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UR과 NAFTA의 주도를 통해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에서 추진되는 한 전통적인 남북격차(개도국과 선진자본주의국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APEC은 선진국 대자본의 이해(시장확대)가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조화적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산업국가들의 경제의 생태학적 개조'를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견지하고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노선(UNDP—유엔개발회의의 보고서)'의 입장에서 각국의 국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 현 배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책부장>

□민주노총이탈 (2) —조직적과제

산업별노조 전제로 한 1국가 1노조 체제로

지난 11월 13일(일) 경희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힘있게 발족시켰다. 그리고 이 준비위에 속한 각 조직단위의 대중적 결의를 모아 내년 상반기중에는 정식 민주노총을 출범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87년 이후 성장과 고난을 겪고온 한국노동운동의 가장 큰 결실이며, 유일 한국노총체제로 일관해온 지난 45년여 우리 노동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초점이기도 하다. 물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치일정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사회민주화의 주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적지 않다.

현재 민주노총 준비위에서 밝히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직형식은 지난 87년 이후 민주노동운동의 성과를 집약하고 있다. 곧 지역, 업종, 그룹별 조직을 모두 인정하는 조직형식이다.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은 현재의 전노협 소속 지역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조직은 사무전문직 업종조직(사무금융노련, 병원노련, 전교조 등 12개 업종)과 전지협, 조선노협, 자동차노협 등의 제조업 업종이 있으며, 그룹별 조직은 87년 이후 우리 노동운동의 독특한 성과인 현총련만이 남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런 논의 결과는 얼마간의 한계를 감출 수 없다. 그간의 성과를 조합했을 뿐 발전을 위한 중심축을 세운 형식은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 노동운동의 절대적인 조직력의 열세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인 산업별 조직화의 전망을 민주노총의 조직형식안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지역, 업종, 그룹별 조직을 조합하는 민주노총 초기의 형식에서 점차 업종별 조직의 비중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산별조직화의 전망을 열어가는, 민주노총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왜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없는가. 현재의 조직형식은 과거의 산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년여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굳건히 관철되는 기업별 노조체계를 한 치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민주노총 그 지체의 역사성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그 독특한 명칭이 말해주듯, 기존의 한국노총에 대한 경쟁조직이다. 곧 노동계 분열을 전제한다. 자본과 권력에 굴종해온 한국노총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부 개혁이 아닌 '대립조직의 건설과 강화'를 택한 산물인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출범하는 그 순간, 민주노조진영을 대표한다는 민주노총의 밖에 여전히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또다시 광범위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출범한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으로부터 이탈하는 조직들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구조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계열 노조들의 요구처럼 순식간에 와해되지 않을 것도 틀림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속에서도 산별조직화를 전제한 '1국 1노조체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국중앙조직의 건설! 이 과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민주노총은 과도기를 책임지는 한시적 조직으로 기능할 것이다. 출범과 함께 완성이 아님을 선언하는 독특한 저항조직, 민주노총은 한국노동계의 재편—기업별 조직 형식을 산업별로, 분열을 통일로—을 과제로 내세우면서 이제 그 닻을 올리고 있다.

노 민 영

<'우리네 일터' 편집차장>

외대만평

망월동에 부릅뜬 눈

□공청회—방위비삭감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불신에 의한 군비경쟁 중단해야

지난 10월 21일 체결된 북미협정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4강균형등 외적조건의 형성은 남북간에 평화체제 구축을 과제로 등장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동북아질서 형성과 민족적 삶의 질 향상,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여러 요소들속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비축소문제가 선결조건이다.

이에 지난 9일(수) '방위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윤옥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강정구 동국대 "남북문제는 결코 종전의 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남북한 군축을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민주당의 나병선 의원이 우리나라 방위비 수준에 대해 "과다한 방위비가 여타 사회발전을 위한 예산들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전보다도 더 방위비를 부담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임숙 사무차장은 방위비 쾌정상의 문제로써 '국방백서'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주관적이고 경직된 분석과 반민족적 친일성 및 대북전력비교의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지도층은

방위예산, 정부예산의 1/4 세계 13위

남북의 적극적 단계군축 절실

사회학 교수와 이장 국민대 행정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는 나병선(민주당) 국회의원, 강명길(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수(평화연구소) 연구원, 조임숙(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차장 등이 자리했다.

강정구 교수는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통일 및 군축'을 주제로 "지금까지의 우리 민족사는 외세에 의한 강요였으며 이에 대한 투쟁의 전개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제는 흡수통일을 용납하지 않는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유리한 조건아래 지주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책기조로는 민족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사업을 남북공동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류보다는 공동사업에 우선을 두고 적대감 해소를 위한 쌍방의 제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남북의 군비현황과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장 교수는 "작년 방위비 예산이 정부예산의 1/4로 세계 13위였다. 남한은 북한의 5.4배인데 국방백서의 '남북한 군사력 현황'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열세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주한미군과 남한의 막강한 산업기술, 군수산업등을 감안한다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군비증강에 대응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북한경제 정체의 원인이 된다"며 실질적 개혁을 할 수 없으며 외형적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적화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방백서는 마치 일본의 그것과 흡사하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미화 · 의존까지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운용상의 문제로 "방위력 발전의 비전과 실천성이 결여됐다"고 말하는 강명길 연구위원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전력구조를 기술 집약형으로 개선하여 운영유지비를 삭감하고 연구비로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해 왔음에도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해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을 김창수 연구원은 "냉전구조하에서 형성된 기형적 예산구조 해건"과 "남북의 대립과 그것에 의한 군사대결로는 민족의 장래가 보장될 수 없다"며 두가지로 요약했다. 또한 방법론에 대해 과도한 주한미군 부담금과 그간의 남비분 감축, 군구조의 전면적 개편보다 장기적 계획, 남북의 적극적인 단계군축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현 시대에 한반도에서 가장 적정수준으로 군축을 하고 분쟁방지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임을 밝혔다.

박수정 기자

□사진으로 보는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건설! 전국노동자대회

즐거운 노동자들

노동자대회, 전야제. 노동자의 설움을 모두 잊는 밤. 그들의 표정에서 내일을 엿본다.

우리들이 원하는 건

산별노조건설은 민주노총의 초석. 천만 노동자의 시선이 하나로 모아진다.

떠오르는 희망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총. 민주노총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노동자인 아버지가 떳떳한 사회, 일한만큼 보답받는 사회, 그것이 아버지가 물려주고픈 사회이다.

자명종

D단조의 슬픈 아리아

김 형 만
<한국통신 노동조합 국제부장, 노어 78>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홈스테이 출입'이라 것이 있었다. 출입 시간은 원칙적으로 대략 7시경에 하는 출입이었다. 과외 못한 사람으로 한 학기 휴학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남자인 경우 군복무로 인한 복학때문에 출입을 제 때 (거울에) 하지 못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경우 말고 진짜 [illegible] 출입시킬 위대위대하게 출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소위 F [illegible] 없다. 나 [illegible] 출입하겠을 그 [illegible] 이었다. 기숙 [illegible] 나의 [illegible] 출입 후 [illegible] 인격주었다. 출 [illegible] 보아 [illegible] 여겼 어리 [illegible] 없었다. 그래서 [illegible] 나는 호구지 [illegible] 한 [illegible] 기계 [illegible] 숫이었다. 학점은 나에게 원죄처럼 붙어 다녔다.

그러나 지금도 이 문동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사실 나는 출입 후에도, 살면서 외로울 때 항상 미네르바 숲을 찾고 그곳의 빈의자에 앉곤 했다. 지금도 가끔 아들과 미네르바 숲을 거닌다. 삶의 위안이다. 미네르바와 빈의자. 아마 1만 3천 외대인은 알 것이다. 이것은 외대학보의 대표적인 칼럼이었다. 나의 기억은 이렇게 말한다. 서정적이면서도 의미심장했던 그 많고 많은 선배들의 미네르바 명칼럼들. 70년대의 마지막 한해 어느 선배는 "미네르바는 외대학보의 꽃이다"고 했다. 이 칼럼을 즐겨 썼고 또 현역 일간신문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후배가 생각난다. 반면에 빈의자는 시사적이며 직설적인 고정란이었다. 이 '빈의자'는 우리 학생기자에게는 의미가 아주 깊었다. 당시에 사설을 학생기자들이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의자를 학생기자의 사설로 여기고 매우 신중하게 글을 썼다. 빈의자를 통하여 배출된 외대학보 출신의 현역기자만해도 열손가락과 연필 한 다스를 합쳐도 모자랄 것이다.

지난달이다. 직장에서 임금문제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후배한테 연락이 왔다. 외대학보 후배들이 학점인가 뭔가하는 것 때문에 편집장이 단식중이란다. 참 기가 막혔다. 대학신문기자가 학점때문에 자율적 신문제작 활동을 못하다니. 나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내 자신의 일이 많이도 생각났다. 우선, 학점을 소홀히하면 나처럼 원죄(?)를 하나 붙이고 다닐텐데…. 완전히 제도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요즘은 일간 신문기자 모집도 좀 창피한 일이지만 학점으로 우선 제한한다는데 말이다. 나처럼 회사 도움받아 외국 유학가기는 다 틀렸는걸.

그러나 내가 그랬듯이 우리 학생기자들이 그런 것을 모를리가 없다. 이것은 내 체험이 말하는 믿음이다. 신문을 제작하고 글을 쓰려는 그 정열 앞에 미래의 일상적인 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 땅에 만지면 피라도 뚝뚝 흘릴 것같은 너와 나의 삶을 외면할 수 없을진데…. 그리고 그 현실적인 댓가는 그가 받는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오직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질 뿐이다. 그리고 대학인이 아닌가. 마땅히 대학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행위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로 성숙한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대학시절 이상으로 우리 삶에서 실존의 가능성이 풍요한 때가 언제일까.

나는 지금 회사의 조합일로 혹은 사적인 일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불행하게도 아무리 잘쓰려 해도, 고백하건데 외대학보 시절처럼 순정한 글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세월의 한계라면 중년으로 넘어가는 인생고개의 회한이 크다. 그러나 한가지 부끄럽 없이 사는 것은 있다. 그 시절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시대와 사람과 학점을 고민했던 시절이 내 정신의 부패를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그 힘으로 이제껏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것 외에는 별로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 없다는 것을. 학점은 잃었지만 사람을 알았고 활자—말 그대로 살이있는 글자—를 알았다. 지금이라도 나는 사람과 활자를 학점과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

괴공문과 맞공문

○…학교당국이 보낸 '괴공문'으로 왕산골 홉산들 쑥덕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괴공문'의 내용인즉,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필히 성적이 2.0을 넘어야 한다는 것.

며칠뒤 학교당국 앞으로 한 장의 공문이 날아갔 터.

"연구실적 부실한 보직교수, 즉각 사퇴하라!"

○…지난 성수대교 부실공사의혹에 이어 이와 맞먹는 일이 왕산골에도 벌겋다는데.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과거 심심치않게 보수공사한 보람도 없이 지연대 지붕의 파리펫인가 뭔가가 무너져 내려앉고 학생회관의 화장실이 누수현상을 나타낸다나.

누구 뺙 맡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왕산 5천8백 홉산들의 뺙은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터.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하는 요즘. 해마다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들던 소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들려 크로니클자 씁씁.

물가인상률이 어쩌네하며 매년 궁색한 비명만을 질러대던 교육부가 올해도 똑같은 핑계로 등록금을 15%나 인상한 것.

어르신네들! 등록금 인상해도 달라진게 없다는 욕먹지 말고 차라리 장학금도 15%늘려주시는게 어떠한지요?

○…UR과동에 죽을 맛이던 우리 농민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배신에 부딪과는 일만 남았다고.

농업시장개방돼도 끝까지 먹여살리겠다고 구슬리던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

이에 목욕히 지켜보던 미국농민들이 놀랍게도 한마디 했다고.

"제 밥줄은 한국농민들입니다. 그 좁은 땅에서 뭘 믿고 사는지 UR이요? 그 좋은 거 언제 시행할꺼에요?"

○…예년에 없던 행사로 "속 보이는 앞은 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사원가족 대축제'를 열기로 했다는 것.

노동자들이 단 하루의 축제보다 계속되는 권리를 더 원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설마 그날 술식체크까지 하지는 않을런지….

때맞춘 축제

고육시장의 강풍이 몰아친다

4. 취업준비생이 본 교육개방을 앞둔 외대

외국어 학원 등록하는 외국어대 4년생

"전공공부는 졸업을 위한 학점취득의 의미외엔 없습니다" 용인캠퍼스 도서관에서 만나본 3·4학년 취업준비생들의 공통된 대답이다. 그들은 지금 전공서적은 뒷전이고 취업을 위한 토플, 토익,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공무원시험, 기업채용시험 과목에만 전념할 뿐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어과 3학년 학생은 7급공무원 시험준비에 바쁘다. 방학중에는 학원에 다닐 생각이라고 한다.

취업을 앞둔 4학년생의 눈에 비친 교육시장개방을 앞둔 외대를 그려본다.

교육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구조와 특징은 무엇인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개방이후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편집자>

"대학 다니지 않고 대학 4년간의 등록금을 모아 외국 어학연수나 1년 다녀왔으면 차라리 [illegible]지도 모른"라는 어느 선배의 [illegible] 다녀온 [illegible]

외대는 [illegible] 소외감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이 나이지만 [illegible]에서 나름대로 대학생활의 목표를 [illegible]정하고 계획을 세웠다.

'전공'은 [illegible]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영화감상 [illegible] 동아대학원에 [illegible] 아저씨'하는 아무것도 [illegible] 시간이 [illegible] 수학 서서히 깨지었다. 영어에 능어서는 [illegible]가 되어 보자 된 [illegible] 것회화 시간부터 급이 가고 있었다. 교수 한명당 25명 이상이 1주일에 2시간 하는 회화시간에 표현하는 말은 고작 두세 마디였다. [illegible] 시간에 외국에서 살았던 청원외 학생이 한두명 정이면 수업시간에 끌려은 벙어리 모양 지의든 타의든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랩시간 역시 그야말로 졸다가 나오는 맘 편한 오수시간쯤으로 여기겠다.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 실망을 낳은 감도 있지만 오래되고 낡은시청각 자료와 교재, 형식적인 수업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움츠러진 어린아이 말같던 영어단어들이 지장가로 들면했다. 사운드나 비디오 라이브러리도 가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좌석으로 2·30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도 부족했다. 비치된 자료나 기기마저도 고장나기 일쑤여서 아저씨의 얽숙한 표정(?)에 눈치를 봐가며 여러번 바꿔야 할 때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입이 하나들씩 누적되자 시청각실 근처에서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고 열의에 넘다 용감하게 몇 마디 해보던 회화시간이 고역이 되었다.

'영어회화만 전공인가. 영문학·영어학·지역학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회화 몇 마디 한다고 영어 잘하는 줄 착각한다니까.'하는 부끄러운 자기 변명으로 외면해 보기도 했다. 외대 다닌다고 하면 영어는 걱정 없겠다는 사람들의 덧없는 부러움과 기대의 압력에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자성에 자구책으로 사설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맘 잡아서는 다른 학교 다른 과라고 거짓말 할까도 했었다. 몇달을 다녔지만 하루에 고작 1·2시간하는 걸로는 이중으로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성과가 크게 못 미쳤다.

95년이면 교육개방이 사실상 허용된다. 유학을 보내는 비용보다는 싸게 먹히고 본교와 같은 교육여건으로 강의하는 명문 외국어대학의 분교와의 경쟁에서 외국어의 대명사인 외대가 과연 지금의 입지를 유지하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 상 희
<서양·영어 4>

□우리나라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특징

가장 '구미' 당기는 한국 교육시장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구조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규모가 방대하며 시장이 만성적 초과 수요 상태에 있다. 시장규모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그 동안의 경제개발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자기성취욕구 증대나 남녀차별의식의 퇴조에 따른 여성의 대학 진학률 증가 등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과도한 학력중시사회라는 데에 있다.

둘째,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고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교육서비스 공급의 주체인 정부와 사학재단의 무지기피로 인하여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마저 교육기본시설 확보면에서나 지원 시설및 교수 확보율 등에서 모두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형편이다. 그간 많은 사학재단들은 교육이 갖는 공익성을 외면한 채 대학을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시장으로만 인식하여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친민자본주의로 학부모 수탈에 진력해 왔다. 또 다른 공급주체인 정부 역시 사립대학 운영을 완전히 사학 재단에 일임하여 사립대학이 갖는 제정적 어려움을 외면해 왔다.

셋째, 서구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학[illegible] 제한 상품이 공급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리 민족이나 국가의 정신적·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고차원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는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언어교육 영역을 비롯한 대학교육의 거의 전 영역에서 소위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강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지역별·대학별 교육서비스의 차별성이 없다. 많은 수의 대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심한 지역간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들조차도 교육내용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대동소이한 것이어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경제 사회 구조상의 특징이 교육내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대학별 교육내용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위 1류·2류·3류라는 대학간 계층분화가 고착되었다.

다섯째,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가 온존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대학교육정책이 없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임시정책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만성적인 초과수요의 존재, 공급지의 횡포와 이에 따른 상품 질의 저하, 교육 서비스의 대학별·지역별 무차별성, 법과 제도의 낙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순식간에 선진 각국의 대학들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대학부>

<세계 주요대학의 교육자료 비교>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1990

대학	학생수 (명)	교원수 (명)	교수1인당 학생수 (명)	도서량 (만권)	학생1인당 도서수 (권)	학생1인당 강비 (만원)	학생6대비 서울대 대비	총예산 서울대 대비
도쿄대학 (일)	20,545	2,228	9.0	609	290.2	952	10.1	7.4
교토대학 (일)	15,523	2,570	5,7	426	281	879	3.0	
옥스퍼드 (영)	13,500	1,408	9.6	800	503	1,434	4.0	2.4
이민대 (독)	34,636	3,115	11,1	-	-	1,034	3.6	4.4
일리노이 (미)	34,447	2,676	12.9	719	203	1,219	4.2	5.1
미네소나 (미)	43,741	2,989	14.6	1,100	251	1,904	6.5	10.2
서울대학	28,000	9,300	21.5	134	49	293	1.0	1.0
외대	13,120	315	41.3	46.5	35	253(1992)	0.8	93년 기준

비둘기칠판

왕산골

■엄화재
민족영화패 '빛보슴'에서 제1회 창작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때 : 11월14일(월)~11월15일(화) 6시
곳 : 신경의동 206호
후원 : 동아리연합회

■안내
학생생활연구소 직성검사실시
때 : 11월 21일(월) 1시 30분
곳 : 학생회관 2층
소요시간 : 1시간
검사비용 : 무료

■향우회
제학생과 졸업생 선배님과의 모임을 갖습니다.
때 : 11월 19일(토) 5시30분
곳 : 서울캠퍼스 앞 중국집 '북경'
<재외대 진주 충동문회>

■동문회
<배정고>
동문회 모임이 있습니다.
때 : 11월 15일(화) 6시
곳 : 교양관 매점

<배명고>
카니발이 있습니다.
때 : 11월 19일(토) 5시
곳 : 우리 함께(경희의료원 앞)

■찾습니다
11월 3일 '외사랑'에서 「상법요론」과 「어음·수표법」(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가져가신 분은 일본어과(4234)로 연락바랍니다.
<J. 92>

11월 11일(금) 승차장 매점에서 검정색 긴 가죽지갑을 습득하신 분은 물리학과 사무실이나 자연대 수위실에 맡겨주세요.

■과 모임
<수학과 졸업생 환송회>
때 : 11월 19일(토) 5시
곳 : 시청 태평서적센터 건너 뒤편 '북창돼지갈비'

<포어과 학생회장 선거 및 종강총회>
때 : 11월 16일(수) 5시30분
곳 : 어문관 206호

이문벌

■심포지엄
서반아어과 사회과학학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주제 : 민족주의
때 : 11월 22일(화)
곳 : 6104호

■환영잔치
윤석양 선배님의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때 : 11월 16일(수) 5시 30분
곳 : 교수식당
<총학생회>

■전시회
그림촌에서 제46회 정기 가을전시회를 엽니다.
때 : 11월 14일(월)~11월 19일(토)
곳 : 본관 1층 교수회의실

■하루술집
이태리어과 94들이 하루술집을 엽니다.
때 : 11월 16일(수)
곳 : 외대호프

■정기공연
목요음악반 22회 정기공연
때 : 11월15일(화) 6시
곳 : 대강당
후원 : 동아리연합회

불어과 노래패 Resonance
두번째 노래울림
때 : 11월 18일(금) 6시30분
11월 19일(토) 4시30분
곳 : 대강당

외인부대 정기공연
때 : 11월 22일(화) 5시
곳 : 대강당
—방상에 있는 하우를 돕고자 하는 자선공연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 기자실 2층 (0335)30-4112

양캠 선거, 이번주에 본격 시작

서울, 법·상경·동양어대 16·17·18일 각각선거

용인, 사회대 제외한 각 단대 16·17일 선거

양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각 단위 학생회 선거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학생회 선거 관련기사 1면>

먼저 서울캠퍼스는 지난 11일(금) 열린 사법대 학생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수)·17일(목)·18일(금)에 각각 법대·상경대·동양어대 학생회 선거가 치뤄진다.

'예비교사의 새날 열기, 인간해방과 참교단을 향하여'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사범대 정·부학생회장으로 단독 출마했던 손호진(사범·독교 3), 김유석(사범·한교 2)조는 지난 11일 열린 선거에서 제적인원 4백60명중 2백77명이 투표해 86.4%의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이와 함께 법대·상경대·동양어대 학생회장 후보로는 박대영(법학·3), 박성동(경영·3)·최영민(터어키어·3)군이 각각 단독 출마했다.

또한 서양어대와 정책과학대 학생회는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며 오는 23일(수)에 각각 선거를 실시한다.

한편 용인캠퍼스의 각 단위 학생회 선거 또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선거일인 16·17일(수·목)에는 인문대, 동양학대, 서양학대, 동구어대, 자연대 학생회장 선거가 치뤄진다. 서양학대는 전체 12%의 추천을 받고 전말봉(영어·3)군이, 동구어대는 이주남(체코어·4)군이, 인문대는 오상우(사학·4)군이, 자연대는 이제규(화학·2)군이 각각 단독 입후보 했다. 동양학대는 문석규(인도어·4)군과 이관희(아프리카어·3)군이 각각 출마해 경합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사회대는 지난 3일(목)부터 7일(월)까지의 1차 후보자 등록기간에 이어 지난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2차 후보자 등록기간에도 등록자가 없어 다음학기 개강 이후로 연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사회대 학생회는 이후 공백기간에 대해선 각 과 회장들의 권한대행으로 사업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여학생회는 김은옥(사회·경제 3)양과 김난연(동구·플란드어 3)양을 정·부로 하는 선거를 오는 24·25일(목·금)에 치루게 된다.

또한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는 학생위원장 선거를 지난 14일(월)에서 15일(화)까지 학생회관 식당에서 선거를 치룬다. 이번 학생위원장 후보는 엄익준(인문·사학 4)군이 단독 입후보 했다.

각과 선거일정과 입후보자및 당선자는 아래표 참조.

<양 캠퍼스 과학생회 선거일정>

서 울		
학 과	선거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영어과	15일	정 : 양성태(93), 부 : 정서준(93) 정 : 서경석(93), 부 : 이상석(90)
이태리어과	16일	서영경(91)
중국어과	15일	황희성(93)
터어키어과	8일	★강명석(93)
무역학과	16일	김광수(93)
경제학과	15일	한명진(93)
경영학과	15일	노범종(93)
영어교육학과	17일	정 : 양성현(93), 부 : 조경욱(94)
독일어교육학과	10일	★이원경(93)
한국어교육학과	3일	★조은호(93)
베트남어과	10일	★김현호(93)

용 인		
학 과	선거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불학과	16일	★이정원(93)
유고어과	2·3일	★문광명(90)
헌어학과	11일	★고희설(93)
서학과	11일	★모성훈(90)
태국어과	10~11일	★류승훈(91)
중국어과	9일	★오승훈(90)
타민어과	9일	★윤재연(90)
아랍어과	10일	★이경훈(90)
노어과	11일	★정상원(90), 김진영(93)
독일어과	17·18일	이경행(90)
이태리어	17일	구경태(90), 최석원(87)
영어과	15·16일	정 : 김태형(92), 부 : 배욱자(93)
포어과	16일	김정한(91), 허진용(90)
루마니어	17·18일	김원중(90)

본교, 홍대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대학원 학점 교환제·도서관 상호 이용 합의

본교와 홍익대학교는 '연구 및 교육협력에 관한 협약'을 지난 7월 28일(목) 체결하고 대학원간 학점교환제와 도서관 상호이용 세칙을 협의·결정했다.

양교의 연구 및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양교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학원간 교환학점제는 양교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교환이 함의된 교과목에 대해 타 대학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학점 교환에 참가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도 이를 타과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수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합의된 대학원간 교환 학점제는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서관 상호 이용 세칙을 살펴보면 교수·직원·학생 모두 각 대학의 도서관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료 열람과 대출은 소속대학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학생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열람실 사용은 교수·직원 및 학점수강생에 한하며 학부생은 방학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도서대출 기간과 책 수는 교수·직원 및 학점교류 수강생 모두 1개월과 5권의 책이다.

한편 양 대학은 교수교환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환 △연구원의 파견 및 수용 △연구개발 용역의 공동 참여 등의 사항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거쳐 협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연구협력처장 최영수(포르투갈어) 교수는 "앞으로 외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도 계속 교류 협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CA, 전태일 열사 추모제

용인캠퍼스 총교동아리 기독학생회(SCA)는 지난 11일(금)에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고 전태일열사 제24주기 추모제'를 가졌다.

추모제는 여는 노래를 시작으로 열사의 약력소개, 정명기 목사(한국 기독교학생회총연맹 총무)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조, 7주년 창립 기념식

단결과 화합 다지는 자리

노동조합(노조)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조합원 단합대회가 지난 10월 22일(토) 용인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렸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우수조합원에 대한 포상을 했고, 2부 단합대회에서는 집단축구와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조합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박점열 조합장은 "7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 대한 애정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가 끝난 후에도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이 이뤄져 더욱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LA동문회, 재학생 4명 초청

외대인의 자긍심 고취 위해

미국에서 활동 중인 LA동문회는 올해 입학성적 우수자 4명을 선발해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8일(금)부터 11월 6일(일)까지 진행된 이번 초청회는 이기원(법·법학1, 단대수석), 최문희(서양·영어1, 단대수석), 정지훈(서학·영어1, 용인수석), 조화영(인문·언어1, 단대수석) 등 4명이 참가해 미국 LA지역과 서부일대를 방문했다.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대동문회의 현황과 활약상을 재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외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초청회는 항공료는 학교지원으로, 체제비는 동문회 지원으로 이뤄졌다.

서울 정문 수위 최영섭씨 부상

학생 차량 통제 도중

서울캠퍼스 정문 수위 최영섭(38세)씨가 지난 8월 31일(수) 학생차량을 통제하다 척추골절 부상을 입고 현재 인창외원에 입원중이다.

이날 최씨는 오전 9시경 무역대학원에 재학중인 이태희(안기부 근무)씨의 차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손을 차뒤에 얹었는데 이를 몰랐던 이씨가 차를 운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위장 명기선씨는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태희씨와의 합의도 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는 지난해부터 외부인 차량과 학생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법고시 본교 출신 3명 합격

강성만씨, 최고령 합격

올해 치뤄진 제 36회 사법고시(사시)에서 강성만(서양·불어 75, 79년 졸), 정일권(법·법학 86, 92년 졸), 윤중성(법·법학 90, 94년 졸)군 등 본교 출신 3명의 합격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이번 사시는 지난 10월 28일(금) 최종 합격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본교에서 최고령 합격자(강성만씨)가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에 합격한 강성만씨는 "이미 외무고시에 합격한 바 있으며 더 많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시를 준비했는데 뜻밖에도 합격해 기쁘다"라며 합격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외무고시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치뤄질 예정이다.

서울 테니스대회 열려 17일부터 19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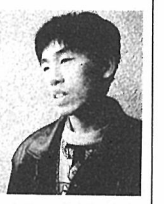
제 22회 외대 총장배 테니스대회가 오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서울캠퍼스에서 치뤄진다.

참가 신청은 지난 3일(목)부터 7일(월)까지 용인캠퍼스를 포함해 개인자격으로 받았으며 현재는 대진 추첨까지 끝난 상태이다.

또한 테니스부는 지난 10월 29일(토)에 창설 30주년 기념식을 하이얏트 호텔에서 가졌다. 약 1백30여명의 동문과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한 윤석양씨를 만나

"출소하자마자 김삼석·김은주 님께 간첩 조작 사건을 접하니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민주화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소하자마자 접하게 된 사건이 바로 프락치 활동을 하던 베인오(본명 백홍용)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밝힌 김삼석·김은주 님께 간첩조작 사건이었지요. 김삼석씨가 외대 출신이어서인지더욱가슴이아픕니다."

지난 90년 10월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고 2년만에 만기출소한 윤석양(서양·노어 85, 제적 상태)씨의 말이다.

공주 교도소에 2년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자 마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에겐 또다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사건이 92년 말부터 준비돼서 작년 9월에 터진 사건이라 들었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정보·공작 정치가 계속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윤석양씨는 베인오씨가 양심선언을 하며 쓴 자료를 보며 자신이 양심선언하게된 계기를 설명했다.

학생 시절에 윤씨는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 이런 활동을 하다 그는 미등록 제적을 당했는데 복적이 안돼 90년 5월 군입대를 결심하게 됐다.

"복적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저만 복적이 안됐지요. 그때 학생처에 찾아가 물어봤더니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땐 그냥 지나쳤는데 군대를 간 것이 실수였습니다"라며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연대 소령이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는데 그 곳이 바로 보안사였습니다. 거기서 전 항복하고 말았어요"라고 윤씨는 자신이 프락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프락치 활동을 하면서 전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나 저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에게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라며 자신때문에 구속된 그당시 혁노맹 의장 박모씨에게 미안함을 갚주지 못했다.

그는 보안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어떤 운동가가 프락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일을 하게 된 자신을 비판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고 한다.

"전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 양심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가 각계 인사 1천3백여명을 상대로 불법 정치사찰을 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그 이후 보안사가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사회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씨는 아직도 안기부가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며 아직도 개혁해야 할 군사정권의 잔재 청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씨는 "2년 동안의 수배 생활과 2년동안의 옥살이를 하는 동안 전 깊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젠 그런 것을 극복하고 저 자신과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요"라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 주최하는 묵요집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인옥 기자>

다른 대학 에선

서울대, 외국어 졸업시험제 도입

서울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인문대학 15개 전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한 외국어 졸업시험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서반아어 중 두 언어를 택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만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탈락자는 다음학기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문제는 원서해독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며 성적을 A·B·C로 분류되며 졸업수행에 외국어 능력을 사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인문대는 또 학생들의 외국어 이수학점이 다른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외국어 이수학점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려대, 5천억원 모금활동 돌입

고려대에서는 지난달 10월 10일(목) 홍일식 총장이 '바른 교육 큰 사람 만들기 위한 교육'을 선언한 이후 이에 필요한 재원 5천억원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고려대는 5천억원 중 국민성금과 학내 교우대상 선금형식으로 3천 6백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기업 기부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고려대측은 모금활동 홍보를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 일간지 광고게재에 이어 이달 부터는 학생대상으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일 현재 모금액이 5억 6천만원이 넘어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60%가 넘는 구성원이 교육선언과 모금운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비쳤다. 이는 성격상 당연히 재단측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임에도 성금모금에 떠 넘김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총학생회 장충식 전 총장 고소

단국대 재단측은 전 구성원과의 합의없이 '서울캠퍼스의 용인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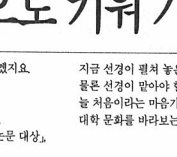
이에 6백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10일(목)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여분간 시위를 벌이다 이중 5백10명이 연행됐다.

또한 총학생회는 조만간 학교재단의 재정위기를 가져오게 한 장충식 전총장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키로 했다.

◉이번주는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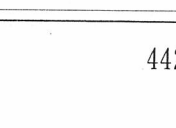
날짜	11/14(월)	11/15(화)	11/16(수)	11/17(목)	11/18(금)	11/19(토)
	· 활산,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 (장소 : 학생회관 식당)	· 영화Get Away (이문 대강당, 2시, 목요일)	· 활산, 총학생회 및 각 단대학생회선거 (장소 : 총학-5개 단대 건물 단대-각 단대 건물) · 법대 학생회 선거	· 활산선거 개표 (자연대 대강당, 오후 6시 · 상경대학생회선거	· 동양어대 학생회선거 · 이문 서우회 전시회(소강당)	
식단 이문	김치볶음밥 냉이된장찌개	우거지국 된장국 리조욱 덮밥	카레 라이스 순두부 찌개	오무라이스 소고기 국밥	콩나물비빔밥 두부된장찌개	
활산(학생회관)	어묵 풋고추 덮밥	닭곰탕	케찹볶음밥	짜장면	소고기 덮밥	잡채밥

대학 문화의 지성적 자긍심을 지켜온 종합 학술 잡지.



한국 대학의 미래를 담는다. 「지성과 패기」

선경그룹이 조선일보사와 함께 마련하는 대학 연극인들의 신선한 경연장.



무대마다 청년의 패기가 넘친다.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한 전국 대학(원)생들의 논문 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선경이 펼치는 대학의 문화 마당-
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학 문화, 그 커다란 의미를 늘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동안 우리의 대학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 가요제와 대동제 탈춤판을 두루 즐길 줄 알고 옛것과 새것을 고루 누리는 다양성이 있으며 개성주의와 공동체론의 공존, 그런 것이 오히려 특징인 듯합니다.

대학 문화가 다양한 만큼 대학 문화를 보는 시각도 여러 갈래이겠지요.
그 중의 하나일 선경의 생각, 선경이 펼친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대학을 생각하고 대학인의 생각을 담는 잡지 「지성과 패기」,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인들이 꾸미는 창의의 무대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시대를 대비하는 논문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지금 선경이 펼쳐 놓은 작은 마당입니다.
물론 선경이 맡아야 할 몫이 이밖에 더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대학 문화를 바라보는 선경의 생각을 한뼘 한뼘 키워가겠습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수필

나는 출발했고 항상 출발하고 있다

'아아, 청춘은 아름다왔다. 정말로 그 무렵은 좋았다. 물론 쓰나 슬픔도 숨어있기는 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것은 행복한 세월이었다. 그 무렵의 나처럼 그렇게 술을 퍼 마시고, 그렇게 춤을 취대고, 그렇게 맘마다 사랑을 찬미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하지만 실은 그때에 거기서 물러서야 했던 것이다. 그후로는 두번 다시 그처럼 행복한 시절은 오지 않았다. 그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크눌프 중에서—

종종 땋은 머리를 얌전하게 내려뜨리며 스산해진 초겨울 바람에 종아리를 드러내고 허리가 메어지는 가방에 황량한 밤거리를 헤쳐 온 것이 작년 이맘때 쯤인가. 까끌한 나무 책상에 달구어진 볼을 부벼대며 대학에 가보겠다는 맹목적인 나의 목표에 매달려 보기도 했다. 또한, 꿈에 젖은 뺨에로마냥 부풀은 희망에 나름대로 몸을 사리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새 대학 1년.

합격자 발표를 보러가던, 깃세운 겨울 코트의 내 뒷모습이 그리워지는 대학 1년의 시절이다. 네 군데의 대학문에서 외면당하고, 오직 외대 발표만이 남아있던 날, 아침 일찍기 알아봐 주겠다는 고모부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릭까페에서, 술집에서 전전긍긍하다 집에가는 지하철 모퉁이 공중전화에서 합격했다는 엄마의 울먹임을 들었다. 엄마의 울먹임, 그것은 내 인생이 한번의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는 의미의 울먹임이었었다.

대학생. 삶은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리며 그리도 부러워하던 대학에 온 것일까. 애초에 큰 기대나 변신한 자신을 바라진 않았다. 오히려 대학생이 된다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것이 나의 당연한 몫인양 무덤덤하게 대학생활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와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따져가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글쎄 난 모든 것을 얻기도 모든 것을 잃기도 한 것 같다. 쫓기는 시간의 긴장감 속에서 해방으로 말미암아 여유로워진 내 마음의 평안에서 모든 것을 얻기도 했고, 여고시절 나를 괴롭히느마 끝없이 펼쳐지던 세세하고 소박한 상상의 날개가 이제는 쥐이므로써 모든 것을 잃기도 했다. 오직 한가지 목표밖에 가질 수 없었던 때는 그것에 이탈되고픈 심정으로나마 별의 별 시시콜콜한 상상에 나 자신을 던졌다. 이를테면 여대생이 된 후 꽃고 있을 머리핀조차도 말이다.

대학에 가보겠다고
맹목적인
나의 목표에
매달려 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새
대학 1년…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소한 소망의 성패임에서 무뎌지고 닥치는 현실을 생각할 뿐, 앞으로의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은 삶을 지나치게 붕뜬게 혹은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이름모를 한 시인의 말이 생각난다. 대학 1년, 나는 출발했고 항상 출발하고 있다. 나의 미래와 좀더 성숙해진 모습을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굳이 비관적으로 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좀더 낙천적이고 싶다. 3년동안 말없이 한 선배를 좋아했던 소녀의 모습마냥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내적으로 커지길 바란다.

오 유 정
<동학·마인어 1>

□광고—학생회 선거 참여 캠페인 광고

삐삐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삐삐를 드립니다!

귀가 솔깃해 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투표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은 웃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봉사에 무관심한 우리들…
혹시 이것이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 속에서 뭉쳐진 힘을 가진 심부름꾼입니다.
11월 16, 17일은 제16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당신의 작은 힘이 필요한 때 입니다.

애드밸리<용인캠퍼스 광고동아리>

□영화평— '내 책상위의 천사'를 보고

닫혀진 나를 열어준 문학이란 이름의 천사

여성과 뉴질랜드라는 두가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주인공 그려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내 책상위의 천사'에는 책상도, 천사도 나오지 않는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주인공과 정신병원, 그리고 그녀 주변인들의 죽음, 세상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주된 분위기를 형성한다.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는 그 뛰어난 작품성과 더불어 유럽문화의 변두리인 뉴질랜드 영화라는 점과 제인 캠피온이라는 여류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으로 크게 유명하다.

'피아노'와 '내 책상위의 천사'는 극의 분위기나 주제의식에 있어 매우 흡사한 점을 보인다.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점과 그 여성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즉,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외부와 자신의 세계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외부세계와의 화해를 통해 뉴질랜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피아노'와는 주제의 접근에 있어 차이점을 드러낸다. 즉, '피아노'가 침묵과 피아노의 소리를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 영화는 작가인 주인공의 끊임없는 언어의 활용을 통해 주제가 전달된다. 또한 '피아노'에선 유럽중심문화가 뉴질랜드로 들어오면서 화해가 이뤄진다면 이와는 반대로 '내 책상위의 천사'에서는 뉴질랜드가 다시 중심을 뉴질랜드로 세우면서 화해와 인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훨씬 뉴질랜드적이다.

주인공 자넷 프레임은 붉은 머리에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를 가진 탓에 친구들로부터 늘 소외를 당한다. 이로 인해 자기만의 세계로 계속 빠져들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문학적 세계였다. 그러나 형제들의 잇단 죽음과 오진으로 인해 보낸 정신병원에서의 8년은 그녀를 더더욱 외부세계와 고립시켰다. 다행히 그녀의 책이 출판되고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동료작가의 도움으로 책을 출판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유럽을 여행하던 중 미국인 교수를 만나 열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인 교수가 떠나고 그녀는 정신적 상처와 경제난에 빠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쓴 책이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고 베스트셀러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게 된 그녀에게 들려온 것은 아버지의 부음이었다. 고향인 뉴질랜드로 돌아온 그녀는 그곳에서 그녀의 중심은 바로 이곳임을 깨닫는다. 천사는 먼 곳이 아닌 바로 이곳의 책상에 그려는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영화의 또다른 특징은 이야기 전개에 있어 자넷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자세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객은 영화밖의 방관자가 아니라 영화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삶과 함께 하게 된다. 여기서 느끼는 상호공감과 연대가 바로 감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이며 영화를 풀어가는 방법이다.

자넷은 그녀가 찾고자 하는 세계 즉,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외부세계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고향임을 깨닫고 세상과 진정한 화해를 한다. 그녀가 막연히 꿈꾸던 파리와 런던, 세익스피어가 아닌 유럽문화의 변두리 뉴질랜드에서 말이다.

여성과 뉴질랜드, 이 억압된 두가지가 자넷 프레임의 중심으로 귀환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영화가 여타의 귀향영화와는 다른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 윤 숙
<사범·한교 3>

파수대

열연

지난 11일(금)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캠퍼스 관현악반의 제7회 정기연주회의 한 장면. 그녀의 바이올린 선을 하나하나가 외대인의 마음을 살찌운다.
<박중선 기자>

1995 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생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야간) (961-4109, 962-711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0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 무역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나. 경제학석사— 국제경제학, 국제지역연구학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1) 논문, 외국어(23개국어) 중 택1 2) 면접
   나. 연구과정—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94년 11월1일(화) 부터 11월16일(수) 20 : 00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국가공무원 및 군·경·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교육대학원(야간)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 00명
   어문계 :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인문사회계 :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유아교육(新)
   실업계 : 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2. 시험과목 : 1) 필답시험(전공) 2) 면접
3. 원서교부 : '94년 11월 7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4. 원서접수 : '94년 11월14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26일(토) 오후2시

*현직교사에게는 수료시(5학기) 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교감, 교장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5급이상)에 재직중인 자는 입학정원의 50%이내에서 특별전형함

경영정보대학원(주간) (961-4119, 965-7046)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각 00명
2. 모집학과 : 경영정보학과, 응용전산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 경영정보학과 —1) 영어 2) 경영학원론 3) 구술시험
   응용전산학과 —1) 영어 2) 전산학개론 3) 구술시험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접수 : '94년 10월 31일(월)부터 11월15일(화) 17시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본 대학원은 첨단학문 분야인 경영정보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주간 석사학위 과정임(대학원 전임교수 7인)

정책과학대학원(야간) (961-4093, 962-3950)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2. 모집학과 :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 전공)
   신문방송학과(신문전공, 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광고전공, 홍보전공)—신설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1) 논문 2) 영어 3) 면접
   나. 연구과정—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94년11월7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 26일(토) 오후 2시부터

예비군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실시 계획

우리 대학교 '94학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훈련 불참자와 2학기 복학자중 교육 미이수자는 전원 참석바람.

—— 아 래 ——

1. 기간 : '94. 11. 24(목), 25(금), 28(월), 29(화)
2. 장소 : 동대문 예비군훈련장(미금사격장) —5278부대 3대대
3. 교육대상
   가. '94년 예비군 훈련 불참자
   나. '92, 93년도 교육훈련 불참자 및 시간미달자
   다. '94년도 2학기 복학자중 교육 미이수자
4. 유의사항
   가. 예비군복 불량자및 지각자는 귀가 조치함
   나. 수송버스 이용시에는 06 : 50까지 학교에 집결바람
   다. 개별 입소시는 07 : 50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것
   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마. 중식은 각자 지참할 것

※필히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본부에서 수령하여 교육일자와 시간을 확인할 것

서울캠퍼스직장예비군연대장